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만리장성과 베를린 장벽

-〈差異〉 韓國語 翻譯論文-



2010年 8月

金美憲

# 만리장성과 베를린 장벽

- <差异> 韓國語 翻譯論文 -

指導教授 宋 炫 宣

金 美 憲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8月

金美憲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趙 成 植

委 員 金 中 燮

委 員 宋 炫 宣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10年 8月

## 목 차

역자서문	1
Episode 1. 만리장성과 베를린 장벽	3
Episode 2. 똑같은 밥을 먹어도 서로 다른 아이로 자란다.	7
Episode 3. 네덜란드의 ‘홍보서(紅寶書)’를 만나다.	16
Episode 4. 네덜란드 아줌마의 의혹	20
Episode 5. 임종 전 교수대 수리를 요구하는 독일인	24
Episode 6. 국가와 이천영월(二泉映月)	25
Episode 7. 되고 안 되고	27
Episode 8. 깐깐한 독일인	29
Episode 9. 90분과 108분	31
Episode 10.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밝히다.	33
Episode 11. 고지식한 독일인	35
Episode 12. 현대판 닥터 벡슨	37
Episode 13.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가?	39
Episode 14. 유럽인이 보는 중국	42
Episode 15. 중국인은 정말 선물에 관심이 없을까?	47
Episode 16. 악수에 왜 반감을 느끼나?	51
Episode 17. 출산과 산후조리	54
Episode 18. 수상부인은 왜 방문을 중단했나?	57
Episode 19. 유럽인은 중국인의 어떤 말을 가장 두려워할까?	59
Episode 20.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68

## 서문

서로 안다고 해서 반드시 서로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인생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외교관에게 경험은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이것은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천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아쉽게도 우리는 젊었을 때 경험이 부족하고, 경험이 쌓였을 때는 더 이상 젊지 않다.

나의 외교관 인생은 1963년 주네덜란드 중국대사관에서 시작하여, 2002년 1월 1일 주독일 중국대사관에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장장 38년 동안 이어졌다. 그 중 28년이라는 시간을 유럽의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루마니아와 독일에 머물렀다. 신중국 1세대 ‘중국 소년 선봉대’ 출신의 혈기왕성했던 이십 대 청년외교관은 현재 공화국의 국외대사가 되었다. 그 덕분에 역사의 장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그 현장에서 수많은 중요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가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통일된 독일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전달한 최초의 대사였다. 그리고 NATO가 5·8사건에 대해 중국정부에 사과한 것을 처음 목격하였다. 또한, 독일이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한 이후, 베를린에 처음 대사관을 열었다. 나의 외교관 생애와 마음의 여로 가운데 유럽은 줄곧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은 놀라운 땅이었다. 번영과 재난으로 점철된 과거, 전통과 현대화가 어우러진 오늘, 그리고 수려한 산천 및 풍속 등, 이 모든 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인상을 남겼다. 특히 그곳의 사람들, 그리고 중국과는 판이한 그들의 사유방식은 내 머릿속 깊숙이 자리 잡아 쉽사리 잊히지 않는다. 유럽에서의 오랜 외교관 생활로 말미암아 유럽의 정재계 및 문화계의 많은 유명 인사들을 비롯해 일반 국민과도 직접 만날 기회가 많았다. 여러 유럽국가의 국민은 가치관이 서로 비슷한 부분도 있었고, 다른 점도 있었다. 따라서 내가 느낀 유럽은 많은 다양성과 공통성을 함께 가진 곳이었다. 또한, 유럽인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고 지내

기는 쉽지만, 진정으로 서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누군가를 알려면, 개인의 정치 성향, 성장배경, 성격 및 특징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한 민족의 구성원으로 그의 사유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인생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외교관에게 경험은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이것은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천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아쉽게도 우리는 젊었을 때 경험이 부족하고, 경험이 쌓였을 때는 더 이상 젊지 않다.

과거를 회상해보면, 어떤 일들은 마치 어제 겪은 것처럼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진다. 그런 소소한 일상의 사건들은 나의 인생의 궤적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런 일상의 사건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확실히 각국의 문화와 사유방식에서 오는 차이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동서양 사유방식의 차이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차이가 나의 일, 생활, 배움의 과정에 끼친 영향은 무척 크다. 상하이 삼련(三聯)서점의 제의를 받고 자오빙빙(趙冰冰) 여사님의 도움에 힘입어, 그때의 느낌과 경험을 책으로 엮을 수 있게 되었다. 부족한 작품이지만 더 많은 지식인이 이러한 소재에 관심을 두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 일화와 나의 감상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없이 영광일 것이다.

2002년 12월

루추텐

## Episode 1. 만리장성과 베를린 장벽

만리장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춘추전국시대에 처음 구축되었다. 진시황은 여기에 무수한 인력과 재력을 동원해 대규모 증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맹장녀의 피눈물 어린 호소에도 그것을 공고히 하고 증축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특히, 명나라 때에 이르러 열여덟 차례의 대규모 보수 공사를 거친 후, 마침내 동·서의 7개 성(省)을 연결하고, 6,0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어벽이 완성되었고, 혹자는 그것을 중화민족의 상징이라고 부른다.

베를린 장벽은 서구에서 가장 긴 벽이지만 전체 길이는 160여 킬로미터에 불과하며, 그 역사도 28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베를린 장벽은 냉전 시대의 산물로 그 축조와 붕괴 자체만으로도 시대를 반영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내가 루마니아 대사로 막 부임했을 때, 특이한 중국대사관 담장을 보게 되었다. 매우 낮고, 중간이 뚫려 있어 도둑 방지에는 별 효과 없을 것처럼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대사관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에게 ‘왜 높고 막혀 있는 담장을 만들지 않는지’ 물어보았다. 그의 설명으로는 루마니아정부는 중국에 매우 우호적이지만, 대사관 담장 구축에 대해서는 완강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일보 양보하였지만 높고 폐쇄적인 담장은 반대했다. 그래서 이렇게 낮고 중간이 비어 있는 담장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소한 사건 하나로 나는 동서양 건축물의 차이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건축을 사유의 응집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종합문화로서 건축은 조형예술이라 칭할 수 있으며, 웅장한 건축물은 대부분 유구하고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류발전의 증거이다. 또한, 뛰어난 건축물은 선진과학기술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건축의 문화적 함의는 심오하고도 유구하다. 유럽에서는 중국과 확연히 다른 스타일의 건축물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도 중국과 다른 사유방식이나

문화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유럽 건축예술의 진수는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 유럽의 교회는 보통 시내에 있고, 특히 성당은 예외 없이 모두 시내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고딕양식의 대표라 불리는 독일의 쾰른 성당 등은 모두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줄곧 무료로 개방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서 선교에 유리한 개방적인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서양의 종교 건축물은 인간의 종교적 열정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화려한 양식과 세속적이지 않은 외관은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강렬한 대비를 보여준다. 이와 비교해보면 세속의 모든 것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중국의 사원은 종종 명산대천에 자리하며 깊은 산 속에는 오래된 사찰이, 명산에는 신전을 모시는 곳이 많다. 교통이 불편했던 고대에는 참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중국 고대에는 ‘시시한 은자는 교외에 은둔하고, 중간급의 은자는 도시에 은둔하며, 최고의 은자는 조정에 은둔한다’라는 말이 있다. 중국인들은 진정한 은자라면 굳이 산속 깊은 곳을 찾아가지 않아도, 속세에서 벗어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예 자신의 집 입구에 작은 사당을 지어 하나에서 세계의 신상을 모시고, 이것을 ‘남해(南海, 관세음보살이 계신 곳)’라고 이름을 붙였다. 중국인들은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중국의 사원은 폐쇄적이다. 또한, 도시 안 종교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관청보다 규모가 커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신을 공경하면서도 한편으로 멀리하고 권력을 숭배하는 중국인들의 심리를 나타낸다.

중국 고대건축은 찬란한 성과를 이룩하여 모든 양식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예컨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완벽하게 보존된 궁전인 고궁과 그 정교함이 하늘의 솜씨에 비견되는 인공정원인 이화원, 미(美)와 실용성이 융합된 쭈저우 정원이 있으며, 더욱 산을 끼고 건축한 많은 석굴과 사찰 등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다. 일반 백성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베이징의 사합원(四合院)처럼 뛰어난 건축물이 있다. 이런 건축물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곳곳에 담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담장은 건축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혹자는 중국 건축문화를 ‘담장 문화’라고 말하며,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리장성(서구에서 일반적으로 ‘The Great Wall’이라고 번역한다)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이는 사합원(四合院)이 중국의 담장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가옥 안으로는 온전히 통일된 모습이지만, 밖으로는 완전히 단절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건축물은 외부와의 경계가 뚜렷하며, 대부분은 높은 벽으로 외부와 거리를 두지만, 높은 건물을 지어 외부와 차단하는 예도 있다. 따라서 외부인은 집안에 발을 들이거나 안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 가옥 내부는 소통을 중시하여, 전후좌우가 서로 연결되어 안쪽 이웃끼리 관계는 매우 가깝다. 가정마다 방들은 서로 연결되어 겨우 커튼 하나로 나뉘어 있어서 집의 어른인 가장이 언제든지 가족구성원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할 수 있다. 서양의 민가는 이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서양의 가정은 밖으로는 개방적이고 공개적이지만, 안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해준다. 아주 어린 아이도 자신의 방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가 그 방에 들어갈 때는 먼저 노크하고 아이가 동의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다. 서양 건축물은 담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 기본적으로 건물을 중심으로 사방이 트여 있고, 건축물과 외부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어떤 규칙에도 예외는 있는 법이다. 예를 들면, 베를린에는 서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긴 베를린 장벽이 있었다. 베를린 장벽의 탄생과 붕괴는 역사적 성격을 띠는 사건이다. 처음에는 얇은 시멘트 벽돌을 쌓아올린 것에 불과했으나, 후에는 동서독의 분열과 뛰어넘기 어려운 양대 진영의 간극 및 냉전의 시작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길이 162킬로미터, 높이 3.6미터의 베를린 장벽은 민주주의 사상이 다른 곳으로 전염될까 두려워 바람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봉대처럼 서베를린<sup>1)</sup> 전체를 완전히 에워쌌다. 장벽 위 302개 감시탑은 강력한 반창고처럼 언제 어디에서라도 이 봉대를 확실히 고정해 주고 있었다. 그 장벽 안에 간

---

1) 동독 안의 서독 영토

혀 사는 서베를린 시민은 마치 동독 중부의 외딴섬에 격리된 것처럼 일상용품 대부분을 하늘을 통해서만 운송할 수 있었다. 서베를린에서 서독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독을 거쳐야만 했는데, 일반적인 출입국검사보다 훨씬 엄격한 통관검사를 거쳐야만 했다. 게다가 서베를린을 경유하여 항공편을 통해 서방세계로 ‘자유로운’ 동독인들의 노력도 대부분 물거품이었다. 대략적인 통계를 보면, 베를린 장벽이 건설된 1961년부터 붕괴한 1989년까지 28년 동안 장벽 근처에서 죽어간 사람은 200여 명으로 그 중 대부분은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많은 문학작품에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을 때, 베를린 시민과 전국각지에서 몰려든 독일인은 밤새도록 장벽 붕괴를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동독과 서독은 통일했고, 독일의 역사와 유럽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구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독일통일 후, 수도의 베를린 이전은 독일에 새로운 건축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 중 사람들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킨 것은 국회의사당이다. 역사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외관은 르네상스 후기의 면모를 온전하게 보존했지만, 내부에는 1945년 소련의 붉은 군대의 낙서해 놓은 담장만 특별히 남겨 놓고는 다른 부분은 헐어버리고,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새로운 공간으로 개수했다. 그중 여러 차례 모진 풍파로 사라진 천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천장이 단연 눈에 띈다. 영국인 건축가는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대신 투명한 반구 모양의 천정을 설계하여 원래 모습을 대신했다. 천장 아래의 의회 홀에서 회의를 하는 의원들은 고개만 들면 파란 하늘을 편하게 볼 수 있고, 관광객들은 투명한 천장 안의 나선형 통로를 통해 높이 47미터의 전망대에 올라 베를린 시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반구를 받치고 있는 중앙기둥은 위쪽이 넓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깔때기 모양이다. 윗부분에는 300여 개의 거울을 상감하여, 낮에는 굴절된 햇빛이 엄숙한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밤에는 반짝거리는 등불이 반사되어 빛나는 월계관처럼 유달리 눈에 띈다.

이 건축물을 통해서 ‘발전은 가장 좋은 계승’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새로 건설한 국회의사당이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독일인의 정신을 나타냈다면, 이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총리관은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을 더욱 많이 나타낸다. 총면적 약 7만㎡인 총리관은 외벽 전체가 큼직하고 투명한 대형 특수유리를 사용하여 채광이 좋을 뿐 아니라, 친환경적 디자인으로 에너지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대회의장에는 총 200석의 기자석도 구비되어 있으며, 이는 유럽 총리관 중 가장 큰 규모로 이러한 부분에서도 그 개방성과 투명성이 잘 드러난다. 밖에서 봤을 때 내부가 완전히 공개적인 건축물은 높은 담장을 세워 만든 중국의 많은 건축물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래도록 이런 ‘다름’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항상 ‘담장’ 안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Episode 2. 똑같은 밥을 먹어도 서로 다른 아이로 자란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서로 다른 아이로 자란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다른 밥을 먹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동서양 사유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어떤 이는 서양인은 동양인에 비해 솔직하고 단순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음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선 서양은 재료가 단순하여 몇 가지 되지 않아서 못 먹는 것이 없는 중국인과는 사뭇 다르다. 또한, 조리과정이 간단하다. 채소는 대충 썰어놓고 생으로 먹으며, 고기 또한, 절반만 익히면 그만이다. 이렇게 단순한 조리과정은 중국요리사의 수많은 조리방법과 감히 견줄 수 없다. 그래서 완성품 또한, 그 본연의 맛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고기는 고기, 채소는 채소 그대로 유지하고 양념으로 맛을 약간 조절할 뿐이다. 그러니 어찌 중국요리처럼 두부피로 닭이나 오리의 맛을 내거나, 가지로 계의 맛을 낼 수 있겠는가.

‘음식은 하늘’이라는 말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통하는 진리다. 비록 모택동(毛

澤東)주석께서는 ‘혁명은 음식 대접하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외교업무 중 상당수는 분명 떠들썩한 술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손님과 주인이 모두 즐거워하는 성공적인 연회나 술자리는 화기에애한 장을 마련해 주어 양측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공식교섭 혹은 공식회의에서 이루지 못한 일이 식사하면서 성사되는, 뜻밖의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우수한 외교관이라면 협상테이블에서 당근과 채찍을 내보이는 화려한 화술뿐만 아니라, 연회에서 술잔을 주고받으며 상대방을 제압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를 사로잡는 맛있는 중국 음식이 중국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는 주중국 독일대사 Ueberschaer와 만찬을 같이한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전에 독일 외무부장관, 사법부장관 등 명사와 같이 식사하면서 중국과 독일 양국관계의 발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는 얘기를 해줬다. Ueberschaer 대사는 나에게 술을 권한 후, 웃으며 말했다. “루 대사, 손에 빅카드를 쥐고 있는 루 대사에게는 정말 못 당하겠소. 물론 그것이 루 대사의 장점이기도 하오. 그것은 바로 중국의 음식이오. 중국 음식이라는 빅카드를 들고 있어, 그렇게 많은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고, 이는 교류에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요소이오. 이것은 다른 대사에게는 없는 것이오.” 농담 같아 보이는 이 말도 중국 음식의 명성과 국가 간, 그리고 민족 간의 음식문화 차이를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음식의 재료에 대해 얘기해보자. 중국인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은 비행기 빼고 다 먹고,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것은 잠수함 빼고 다 먹으며, 네 발 달린 것은 책상 빼고 다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다. 중국인은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땅에서 뛰어다니며, 물속에서 노니는 각양각색의 것을 먹고, 게다가 그들의 머리에서 발까지, 겉에서 안까지 모든 부위를 먹으며, 심지어는 제비집 같은 새 둥지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재료는 ‘회소할수록 귀하다.’라는 말처럼 희귀하고 특이한 것일수

록 유명한 먹을거리가 되기 쉽다. 원숭이 꿀, 곰 발바닥, 우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원래 돼지고기처럼 흔한 재료는 상류층의 식탁에는 잘 오르지 않지만, ‘바주렌(扒猪臉)<sup>2)</sup>’은 일부 지역에서 큰 사랑을 받는다. 중국인의 이러한 정신은 그야말로 ‘못 먹을까 봐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생각을 못했을까 봐 걱정한다.’라고 할 수 있다.

음식 재료에서 서양인은 많이 단순하다. 대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등 흔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뼈와 가시를 발라낸 고깃덩어리를 끼니마다 먹으면서, 좀처럼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 한번은 헬무트 콜 전 독일총리를 식사에 초대하여 ‘베이징 덕’을 특히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았다. 그 후, 음식 대접을 할 때마다 ‘베이징 덕’을 준비했고, 그는 매번 그것을 매우 맛있게 말끔하게 먹어치웠다. ‘싼젠(3가지 날카로운 것)’이라고 불리는 머리, 발, 날개는 많은 중국인이 좋아하는 것이지만, 유럽에서 이를 찾는 이는 거의 없다. 각종 내장도 마찬가지로여서 가공되어 애완동물용 사료로 사용하거나 그냥 버린다. 이렇게 보면 유럽인들은 상상력이 부족해 보이지만, 어떤 규칙에도 예외는 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달팽이 요리와 푸아그라처럼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인기메뉴가 있다. 하지만, 프랑스인이 달팽이를 먹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단순히 당시에 흥작으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줄곧 내장과 창자를 꺼려온 서양인들이 푸아그라에는 심취해 있는 이유는 아직도 고증이 필요하다. 환경보호주의의 확산과 다른 몇 가지 원인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채식과 잡곡 섭취를 선호하면서 정제되지 않고 더욱 자연적인 음식을 찾게 되었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마트에 가 보면 이 말을 바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각종 맥기울 빵, 통밀 비스킷 등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고 있다. 정제가 덜 된 음식은 ‘음식은 정교로울수록 좋고, 고기는 다질수록 좋다.’라는 공자의 말씀과는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한번은 유럽친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요즘 특이한 현상이 있어. 부자는 채소를 먹지만, 가난한 사람은 고기를 먹고, 또한, 부자는

2) 간장양념에 조린 돼지머리.

단독주택에서 살지만, 가난한 사람은 높은 건물에서 살아. 부자는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고 일광욕을 하기 때문에 까맣고 말랐지만, 가난한 사람은 술 마시고 족발을 먹으니, 올챙이처럼 배가 산 만하지.”

이번에는 조리방법을 살펴보자. 중국요리는 중국문화의 광대하고 심오한 특징을 충분히 반영한다. 미식가들은 음양오행의 철학사상을 받아들여, 지역 특유의 기후, 특산물, 풍습 등의 조건을 잘 결합하고, 볶고, 지지고, 삶고, 튀기는 등의 온갖 조리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남쪽은 달고, 북쪽은 짜고, 동쪽은 시고, 서쪽은 매운 중국 8대 요리를 발전시켜 중국요리의 주류를 형성했다. 또한, 독특한 한방재료를 빼놓을 수 없다. 과거 중국인들은 ‘의식동원(醫食同源)<sup>3)</sup>’ 사상을 받아들여, ‘이형양형(以形養形)<sup>4)</sup>’ 했다. 즉, 음식을 보약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계절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각종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꽃을 탕이나 요리 안에 넣어 좋은 것을 섭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그 이론의 근거는 녹두나 고과의 성질이 차고, 여지의 성질이 뜨거우며, 사과를 따뜻하다는 것처럼 매우 오묘하여 중국인들도 자꾸 혼동하여 헛갈리니 외국인이 정확하게 알 리 만무하다. 이 외에 궁중요리, 관청요리, 사찰요리, 민족요리 등이 모두 각자의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서양의 조리방법은 무척 간단하다. 다들 알다시피 샐러드는 여러 가지 야채들은 대충 썰어 넣고, 그 위에 드레싱을 뿌리면 바로 완성이다. 게다가 고기도 그저 익히기만 하면 바로 먹는 것 같다. (심지어 어떤 것은 핏기가 가시지 않은 스테이크처럼, 완전히 익히지 않는다.) 소금이나 후추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어 각자 알아서 곁들인다. 그런데 치즈는 오히려 종류가 다양하고 모양도 여러 가지이다. 하지만, 중국인은 보통 잘 소화해 내지 못한다. 양식의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유럽인들 중에서도 독일인들은 매우 진지하게 음식을 만든다. 나는 독일가정의 주방 몇 곳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는데, 커다란 창이 있고, 먼지 한 톨 없이 깨끗

3) 질병 치료와 식사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근원이 동일함을 이르는 말.

4) 부족한 부분을 먹는다. 즉, 무릎이 아프면 도가니를 먹는다.

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각종 조리도구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 ‘혹시 여기가 실험실이 아닐까?’라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계량컵, 저울, 온도계, 모래시계 등등, 게다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는 작은 숟가락도 있으며, 계란 깨는 기계, 여러 가지 집게,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물건으로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그들의 조리과정은 화학실험처럼 정교했다. 중국요리에 흥미가 있는 독일부인이 그대로 따라 하려고 중국요리의 레시피를 나의 아내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소금 약간, 기름 약간’라는 글을 보고 당황하여 레시피를 돌려주었고 이 요리를 단념했다고 한다.

이러한 세밀한 과정 또한, 독일인의 엄격하고 과정을 중시하는 특징을 잘 나타낸다. 하지만, 중국인은 전체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떤 이는 서양인은 중국인보다 직접적이고 단순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서양은 우선 재료가 단순하고 조리과정이 간단하여, 완성품 또한, 그 본래의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채소는 채소고, 고기는 고기로, 원래의 재료에 맛을 약간 조절할 뿐으로, 중국요리처럼 두부피로 닭이나 오리의 맛을 내거나, 가지로 계의 맛을 내지는 못한다. 물론, 이것은 단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이니 반드시 믿을 필요는 없다.

이번에는 식탁과 식사도구를 살펴보자, 중국인은 일반적으로 원탁을 사용한다. 오색찬란한 등불 아래 많은 손님이 꽉 차 있으며, 맛있는 음식들이 하나씩 원탁 가운데 올려지고, 떠들썩하게 분위기가 고조된다. 원탁은 건배하거나, 음식을 집기에도 편리한 ‘화합’의 상징이다.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네모난 식탁을 사용하며, 그 위에 몇 개의 양초를 세팅한다. 은은한 촛불 아래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 더욱 로맨틱하다. 식사할 때는 개별 식사를 하는데, 각자 자신의 것을 먹으며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모두 각자 어린이용 의자가 있고, 자신의 그릇과 음식이 있다.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해보면, 서양에서는 갓 태어난 아이라도 자신의 방이 있어 부모와 따로 잠을 자고, 저녁에 엄마가 아이의 방으로 가서 우유

를 먹인다. 모두 아이들의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이다.

중국인은 배려하는 뜻에서 음식 대접을 하면서 종종 상대방에게 직접 음식을 집어준다. 하지만, 서양인들은 이런 풍습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상대방을 초대하고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만들거나 더 많은 음식을 주문하여 손님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다면, 이미 자신들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음식을 직접 집어서 주는 것은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자신의 스타일이 있듯이 저마다 좋아하는 음식도 모두 다를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른 사람도 좋아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굳이 상대방의 미움을 살 필요가 없다. 또한, 중국의 많은 지방에는 공용 젓가락을 사용하는 습관이 없어, 자신의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기도 하고 먹기도 한다. 그래서 개인의 타액이 묻은 젓가락이 다시 음식에 닿을 수 있으니, 그리 위생적인 것 같지는 않다.

식기를 살펴보자. 중국의 젓가락은 음식의 모양을 망가뜨리지 않은 채, 길고, 짧고, 딱딱하고, 부드러운 음식 중 어떤 것이라도 모두 ‘가볍게 집어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을 때에는 몇 개의 젓가락이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식탁에 가득히 있던 음식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중국인의 채주와 지혜는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을 사용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주로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고 비교적 중요한 자리에서는 나이프와 포크를 세트로 준비하며, 버터를 바르는 전용 나이프도 따로 있다. 일반적으로 포크와 나이프는 놓인 순서에 따라 밖에서 안쪽 순으로 사용한다. 달팽이류를 먹을 때도 전용 집게와 작은 포크가 있다.

요리와 식기 얘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실질적인 단계인 ‘먹는’ 얘기를 해보자. 정식 서양요리는 일반적으로 먼저 술이 나오며, 각자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다. 전체 요리로 보통 샐러드가 먼저 나오고, 그 후 수프가 이어 나온다. 그다음에 나오는 메인 요리는 보통 스테이크 종류이며 여기에다 생선요리까지 나오면



이미 절정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주요리를 먹은 후 축사를 하는데, 대부분 배가 어느 정도 부른 후라 좋은 분위기가 쉽게 조성된다. 마지막 후식으로는 푸딩이나 아이스크림 종류가 나온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빵을 바구니에 담아 식탁 위에 두어 마음대로 먹도록 한다. 이러한 서양식사는 차가운 음식과 따뜻한 음식을 포함한 요리 3가지와 수프 한 가지의 범위를 절대 넘지 않으며, 국가연회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중국요리는 일반적으로 먼저 차가운 음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따뜻한 음식이 나온 후, 마지막에 탕과 주식이 나오는데, 남방의 일부 도시는 탕이 먼저 나오기도 한다. 간단해 보이는 식사라도 정식연회에서는 과정이 복잡해진다. 우선 초대자가 환영사를 하면, 손님이 이에 인사말을 한다. 이 과정이 마치 '테이프 절단식'을 방불케 한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자리라는 것과 이 식사를 중시한다는 태도를 나타낸다. 나는 종종 독일인에게 '메뉴판은 길어야 하고, 말은 짧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도 이에 크게 공감한다. 식사 전에 인사말을 하면, 다들 꼬르륵거리는 배고픈 배를 부여잡고 식탁 위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보며 침을 흘리게 된다. 그래서 화자가 너무 길게 말하면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된다. 하지만, 식사 전에 인사말을 끝내면 더욱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인사말을 하기 전에 나온 요리 몇 개는 그 맛을 제대로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인사말을 해야 할 사람이라면 말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메뉴는 인사말보다 길다. 예를 들어 보자, 10명이 식사할 경우, 6개 이상의 차가운 요리와 8개 이상의 따뜻한 요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통 낙양수석(洛陽水席)은 24가지 요리가 물 흐르듯이 상에 올려지는 코스요리로, 요리마다 이름이 있다. 이것으로 그들이 이 요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요리도 만한전석(滿漢全席)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정통 만한전석은 많은 사람이 사흘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으로, 길고 긴 메뉴판을 보고 있노라면 입이 떡 벌어진다. 보통 요리들은 고기와 채소의 비율, 색과 향, 맛과 모양을 따져 준비하며, 산해진미와 전복, 제

비집, 상어지느러미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룩셈부르크 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파티에서 발생한 일을 통해 나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대사관에서 파티를 열었는데 초대 손님은 룩셈부르크의 저명인사들로 정부 관료와 기업가도 있었다. 그 중 초청인사 중 한 분이 만찬 메뉴판을 한번 훑어본 후, 예를 갖추고 나에게 말했다. “대사님, 이렇게 성대한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해산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 음식을 모두 즐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대해주신 것만으로도 무척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채소요리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즉시 의전 담당자에게 다른 요리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는지 요리사와 상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갑자기 발생한 일이라, 요리사가 바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은 당면과 고기를 볶은 ‘마이상수(螞蟻上樹)’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 요리가 귀빈께 대접할 만한 요리로 적합한지 여부였다. 왜냐하면 이 요리를 이제까지 한번도 외국손님에게 대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보고받고, 나는 그래도 음식이 없는 것보다는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마이상수’는 당당하게 식탁에 올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외로 이를 맛본 귀빈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를 본 다른 귀빈들도 먹고 싶다며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그날 만찬에서 ‘마이상수’는 가장 인기 있는 요리가 되었다. 이런 작은 일화로 분위기가 더욱 좋아져 초대된 사람도, 초대받은 사람도 모두 기분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이상수’가 맛있다는 소문이 점점 퍼졌고, 중국 대사관에 초대를 받아 오신 룩셈부르크 귀빈들은 모두 또박또박 ‘마이상수’를 말하며 맛보길 원했다.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상에 올라간 ‘마이상수’는 뜻밖에도 내가 룩셈부르크에서 대사로 지내는 동안 연회의 간판 요리가 되었다. 이 일을 통해, 음식의 좋고 나쁨은 음식의 고급스러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달렸음을 깨닫게 되었다.

‘당신에게 맛있는 요리가 타인에겐 독약이다.’이라는 서양 속담이 바로 이 일화와 잘 부합한다. 중국인들이 진귀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해삼’, ‘전복’을 서양인

이 반드시 좋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해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해삼을 ‘바다의 송충이’라 평하며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다고 하니, 먹는 것은 어렵도 없는 소리다. 어쩌면 중국인에게 ‘일반 가정식’에 지나지 않은 평범한 음식들이 오히려 서양인들의 입맛에 잘 맞을지도 모른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최근에 한 기사에서 볼 수 있었다. 저명한 만담가인 허우 바오린(侯寶林)은 손님 접대에 새롭고 기발한 방식을 사용한다는 내용이였다. 허우 선생은 베이징에서 나고 자란 베이징 토박이로, 유명한 미식가이기도 하다. 그의 손님 접대는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찌르는’ 방식으로, 요리는 항상 베이징인이 즐겨 먹는 것으로 택한다. 외국 손님들에게 그는 ‘군빵’, ‘짬아찌’, ‘족발’, ‘소고기장조림’, ‘좁쌀죽’, ‘춘장’, ‘파’를 대접한다. 일반인들에게는 평범하기 그지없겠지만, 외국손님들은 줄곧 맛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허우 선생의 연회는 저비용으로 문화의 품위를 지키며, 담백하고 소박한 음식으로 기름기가 잔뜩 있는 큰 식당의 음식으로 불편했던 외국손님들의 입을 정화해 주기 때문이다. 마치 한여름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같으니,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동서양의 음식문화에서 또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또 있다. 한번은 독일의 고위직 관료가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대표단의 단장과 연방정부의 부장과 함께 중국방문 소감에 관해 대화했다. 매우 돈독한 관계여서 솔직한 이야기가 나왔다. 대표단이 가는 곳마다 지방정부의 성대한 대접을 받았으며, 수십 가지의 음식을 보고 매우 놀랐고, 매번 배불리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지방정부의 대표가 너무 겸손하게 “오늘 차린 음식이 적습니다. 다들 양해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틀에 박힌 인사말을 한다는 것이었다. 누가 봐도 풍성한 연회자리인데도 ‘간단한 식사’라며, 식탁에 차려진 수십 가지의 산해진미를 보며 ‘차린 게 없다.’라고 했다. 그들은 ‘만약 우리가 이후에 답례로 초대한다면 고작 요리 두 개에 수프 하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중국의 음식은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자자한데도, 요리가 정말 좋지 않아 송구스러운 거라면 왜 좋은 음식을 손님에게 대접하지 않는 것인가? 중국인들은 지나치게 겸손하다. 만약 독일인이 음식 대접을 한다면, 집이나 식당 어느

곳에서 식사하더라도 보통 요리 두 개에 수프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부인의 대표요리든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요리든 분명히 손님에게 내놓고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다. 그것이 손님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어떤 지역은 손님이 술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든다. 대부분의 독일인처럼 나도 도수가 높은 독한 술은 마시지 않는데, 중국인들은 자꾸 건배를 제의하여 매우 난감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덧붙였다. “루 대사, 그들에게 좀 말해주지 않겠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지나치게 성대한 연회는 낭비이며,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술 권유는 오히려 악습이라고 말입니다.” 그 후, 나는 업무보고를 위해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지방에 가서 상황을 관찰했다. 정말로 일부 성(省)의 지도자들은 간단한 식사이며, 송구스럽다는 케케묵은 말을 했다. 바로 독일 관료의 의견을 전달했다. 모두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생각을 못했었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한 후에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 Episode 3. 네덜란드의 ‘홍보서(紅寶書)<sup>5)</sup>’를 만나다

문화대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어느 날, 나는 네덜란드인이 보내온 ‘중국인과 장사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의 ‘홍보서(紅寶書)’를 받았다. 이 책은 중국인과 장사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당신이 진심으로 ‘문화대혁명’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입으로는 ‘문화대혁명’을 찬성하고 지지해야 한다. 또한, ‘이익은 변하지 않지만, 수단은 변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항상 기억해라. 당신의 정치적 태도는 당신 상품의 질이나 가격보다 더욱 중요하다. 만약 현재 당신이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중국의 정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당신이 중국의 우호적 인물에 포함된다면, 당신의 재산은 그때부터 눈덩이 불어나듯이 늘어날 것이다.’

5) 모택동 전 중국 국가주석 어록을 담은 책으로,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The Little red book(작은 빨간 책)’이라고 번역한다.

1967년,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다. 당시 국내에서는 ‘문화대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기에 홍위병이 손에 ‘홍보서’를 들고 있는 장면이 유럽의 TV 화면에 자주 등장했다. 당시 유럽에서는 《마오 주석 어록》, 《마오 성경》 혹은 《빨간책》으로 줄여서 불렀는데, 많은 유럽인 특히 젊은이들은 대사관에 와서 《빨간책》을 달라고 요구했다. 연구가 목적인 사람도 있었고 단순히 호기심 때문인 사람도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네덜란드 상인이 대사관에 와서 며칠 후 ‘광저우 교역회’에 참가할 예정이라 중국과 관련된 자료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영문판 《마오 주석 어록》과 마오 주석의 배지를 받고 싶어 했다. 원하는 것을 받자 매우 기뻐 하더니, 갑자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현재 중국은 정치와 경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나는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일반적인 상황을 말해주었다. 설명을 들은 후, 그는 아무런 말없이 웃으면서 몸을 일으켰다. 응접실까지 배웅했을 때, 그 상인은 고개를 돌려 진지하게 말했다. “저에게 다른 《빨간책》이 있는데, 나중에 보내 드릴게요. 괜찮으시면 한번 읽어 보세요.”라고 해서 나는 그러라 했다. 당시 유럽에는 《어록》의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3일 후 디자인이 《어록》과 거의 비슷한 《빨간책》을 받았다. 그 책의 제목은 놀랍게도 《중국인과 거래하는 비결》이었다.

책의 속표지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고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분위기가 고조된 시기로 모든 것은 ‘문화대혁명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업무형태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새로운 상황에 맞춰 당신의 계획과 행동을 수정해야 한다. 당신이 적시에 무역 기회를 잡고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 책에서는 중국의 최근 상황을 설명하고 당신이 참고할 만한 몇 가지 비밀을 기술했다.’ 책의 목차에는 ‘문화대혁명의 발생 배경’, ‘혁명 수행 및 생산 촉진의 상황’, ‘혁명위원회의 성격과 직

권’, ‘대외무역상황’ 및 ‘당시 유행한 정치강령과 혁명모범극<sup>6)</sup>의 간단한 소개’가 있었고, 맨 마지막에는 몇 가지 ‘비결’이 적혀 있었다.

‘비결’에서는 ‘당신이 진심으로 ‘문화대혁명’에 동의하는지에 상관없이, 입으로는 ‘문화대혁명’을 찬성하고 지지해야 한다. 또한, 중앙문혁소조(中央文革小組)와 현지 혁명위원회에 매우 존경하는 태도를 연출하는 것이 좋다. 사업에 관한 얘기만 늘어놓아서 안 되며, 반드시 정치얘기를 해야 한다. 여기서 《마오 어록》을 두어 마디 인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행동하기를 권했다.

‘당신이 광저우에 도착하면,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마오 배지를 달았는지, 서류가방 안에 마오 어록(배지와 어록은 중국대사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을 가졌는지 확인한다. 숙소에 도착하면 바로 광저우 교역회의 담당자나 거래처에 연락을 취한다. 하지만, 바로 업무에 대한 얘기를 꺼내서도 안 되며, 식사대접을 할 필요도 없다. 다만 홍등기(紅燈記) 같은 혁명 모범극을 오래전부터 보고 싶었으며, 이번 중국 방문기간 동안 이 오랜 숙원을 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말을 통해 당신은 이미 광저우에 도착했으며, 정치적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상대방은 당신에게서 매우 좋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도착 3일째, 만약 가능하다면 거리에서 중산복<sup>7)</sup>(이 방법이 이상하다면 하지 않아도 좋다)을 구입한다. 또한, 비즈니스를 할 때 자연스럽게 《마오 어록》을 인용하여 말한다(그리고 서류를 꺼낼 때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가방 안에 《마오 어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협상이 임박했을 때, 특히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날에 상대방에게 다시 한 번 마오 주석의 《노삼편(老三篇)<sup>8)</sup>》을 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다. 그리고

6) 문화 대혁명 기간 중 모범극으로 지정된 팔대 현대극. 즉, 경극 《지취위호산(智取威虎山)》·《해항(海港)》·《홍등기(紅燈記)》·《사가빈(沙家濱)》·《기습백호단(奇襲白虎團)》·《용강송(龍江頌)》과 발레극 《홍색낭자군(紅色娘子軍)》·《백모녀(白毛女)》를 가리킴

7) 인민복 또는 마오룩(Mao look)이라고도 한다. 중국의 정치가 쑨원[孫文]이 고안하여, 쑨원의 호인 중산(中山)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1929년에 중국국민당에서 국가의 공식 예복으로 지정하였다.

8) 모택동의 단편집 3권을 일컫는 말로 《국민을 위해 일한다(爲人民服務)》, 《우공이산(愚公移山)》, 《닥터 베히를 기념하다(紀念白求恩)》를 말한다.

는 ‘이 책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혁명운동가에게도 매우 심원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귀국 후, 이 책을 제대로 공부할 것이다.’라고 매우 진실 되게 말해야 한다.’

‘비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당신이 책에 적힌 대로 실행한다면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중국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가치관과의 충돌을 극복해야만 한다. 또한, 이익은 변하지 않지만, 수단은 변할 수 있다 라는 진리를 항상 기억해라. 당신의 정치태도는 당신 상품의 질이나 가격보다 더욱 중요하다. 만약 현재 당신이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중국의 정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정치이고, 둘째도 정치이며, 셋째도 정치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중국의 우호적 인물에 포함된다면, 당신의 재산은 그때부터 눈덩이 불어나듯이 늘어날 것이다.’

나는 《비결》을 읽고 나서 오랫동안 마음이 불편했다. 대사관에서 《어록》과 배지를 받아간 그 상인이 《비결》에 적혀 있는 대로 행동했고, 이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 누군가는 이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당시 중국사회에 대한 완벽한 통찰과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 책에서 구현한 실용주의 철학은 더 이상 보충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세한 행동강령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나는 한참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점 차이 외에도 문화와 사유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덜란드에서 14년간 생활하는 동안, 나는 종종 네덜란드인과 그곳에서 오래 생활한 화교들과 함께 중국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네덜란드 친구는 네덜란드인이 ‘유럽의 중국인’이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인과 중국인은 모두 장사에 능하여 전 세계 구석구석에 그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인은 투철한 절약정신으로 인색하다는 말

을 듣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우스갯소리도 있다. “구리철사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 바로 네덜란드인 두 명이 동전을 서로 가지겠다고 잡아당기다가, 얇게 늘어나서 생긴 거야.” 또한, 다음 이야기는 유럽에서 유명한 농담이다. 네덜란드인이 자신의 커피 안에 빠진 모기를 발견하면 먼저 그것을 건져 날개 위에 남아 있는 커피를 흔들어 컵에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모기를 컵 옆에 올려놓은 후 모기에게 소리친다. “빨어! 내 커피 얼른 빨어!”라고 말이다.

본론으로 돌아와 사고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중국인과 네덜란드인의 사고방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천하를 자기 집 마냥 전 세계를 누비는 것은 같지만, 네덜란드 사람에게는 중국인처럼 ‘타향살이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열망은 없다. 다음은 내가 만난 사람들 얘기이다.

#### Episode 4. 네덜란드 아줌마의 의혹

14년 동안 화목한 결혼생활을 한 중국 남편은 그녀 몰래 고향의 아이들과 친척들을 네덜란드로 데려왔고, 임종 직전 거의 모든 재산을 십여 년 동안 얼굴도 보지 못한 중국에 있는 전 부인에게 남겼다. 네덜란드 부인은 이런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일이다. 어느 날 오후, 대사관 업무가 마감되기 직전 한 네덜란드 아주머니가 들어오셨다. 50세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는 검은색 옷을 입었으며 매우 초췌해 보였다. 그리곤 나를 보자마자 “당신들 중국인은 어쩜 그렇게 나쁠 수 있죠!”라고 쉰 목소리로 힘껏 외쳤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서둘러 아주머니를 자리에 앉히고 물을 갖다 주었다. 그녀는 물을 마신 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다. 14년 전 네덜란드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중국남자를 알게 되었고, 들은 바로 사



랑에 빠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자는 중국에 있는 부인과 이혼하고 그녀와 재혼했다. 그 후, 두 사람의 생활에 조금씩 마찰이 생겼다. 그녀는 남편이 고향에 있는 아이들이나 친척을 네덜란드로 데려오는 것을 반대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고 아내가 화를 낼 것을 걱정해 아내 몰래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록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두 사람 관계는 괜찮은 편이었고, 가정도 화목했다. 하지만,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오래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유서를 공개할 때, 그녀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남편이 거의 모든 재산을 십여 년 동안 얼굴도 보지 못한 전처에게 남긴 것이었다. 이런 가슴 아픈 얘기를 털어놓고는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요?”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힘이 되려고 노력했다. 마지막에 그녀는 비틀거리며 대사관을 떠났다.

그 후 친구와 동료에게 이 일을 말했을 때, 그들은 이 네덜란드 부인을 동정하지만, 중국남편의 행동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조강지처는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조강지처를 버리고서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고, 재산으로라도 보상을 해주고 싶었을 거야.”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결국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 거지, 잠깐 병이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니, 재산으로라도 고향에 대한 미련을 대신 전한 거야.”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중국인은 보통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장거리 여행도 가지 않아. 부득이하게 고향을 등진 사람들은 천하를 호령하겠다는 원대한 포부외에도 모두 금의환향하고 싶은 소원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재물이라도 보낸 거야. 자신은 네덜란드에서 헛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

그 중국남자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어서 누구 말이 옳은지 판단할 방법이 없지만, 아마 모두 맞는 말일 것이다. 어쨌든 서양인에게 이러한 감정은 어려운 수수끼와 비슷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 농경사회는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 중 대표적인 특징은 자급자족과 안분지족 정신이다. 한 뼉의 땅과 ‘부인, 자식, 보금자리’만 있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도 상관없었다. 그래서 자신이 살던 곳에 익숙해져 쉽게 떠나려 하지 않는다. 역사를 뒤돌아보더라도 중국인은 큰 재난이나 전란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 쉽게 고향을 떠나지 않는다. 이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장거리 여행도 가지 않는다.’라는 말과 잘 부합된다. 이는 미국인이 일생에 열 번 이상, 혹은 수십 번 이사하는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소농제 경제사회에서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백성이 살아갈 터전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토지를 떠나면 사람은 바로 돌아갈 곳이 없어진다. 이런 토지에 대한 미련과 숭배는 점차 토지가 속해 있는 마을에 대한 특수한 감정으로 변했다. ‘아름다운 것은 고향물이고, 친근한 것은 고향사람이다.’와 ‘고향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 눈물이 흐른다.’라는 말은 향토를 중시하는 중국인의 관념을 생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중국에는 인생에서 가장 기쁜 네 가지 일에 관한 표현이 있다. 즉,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일’, ‘타향에서 옛 친구를 만나는 일’, ‘신혼 첫날 밤’, ‘과거에 급제한 일’이다. 타향에서 옛 친구를 만나는 것을 나머지 세 가지와 같이 논했다는 것이 중국 특유의 사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예를 들어, 영웅호걸인 한 고조 유방은 자신의 희로애락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황제가 되어 고향에 내려가 사람들과 실컷 술을 마실 때, 기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한껏 격앙된 어조로 《대풍가(大風歌)》를 목청껏 불렀다는 미담이 전해진다.

영웅조차 이러한데 보통사람이라면 더욱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타국에서 우연히 만난 중국인 두 명은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 감정은 배가 될 것이다. 중국 국외방문단이 국외의 어떤 장소, 예를 들어 중국 식당에서 중국 사람과 만나 얘기를 시작하면, 맨 처음 하는 말은 분명히 “고향이 어디세요?” 일 것이다. 국외에 있는 중국인들도 때

때로 여러 향우회에 참가하여 한 번씩 만나면서 감정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서양인, 예를 들어 독일인일 경우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중국인보다 훨씬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독일인이 열정이 부족하고 중국인보다 냉정해서일까? 그렇지 않다. F1 자동차 경주나 축구시합에서의 독일인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분명 엄숙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열정과 걱정이 넘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저 향토라는 개념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지 못할 뿐이다. 따라서 독일에 NGO나 교우회, 환경보호 자원봉사회 같은 많은 민간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향우회가 없다.

중국과는 달리 독일과 유럽은 역사에서 농업사회가 차지하는 기간이 짧았고, 오히려 산업사회의 역사가 길었다. 만약 유럽에서 농업사회가 오랫동안 지속하였다면, 서양인도 소규모 생산자다운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빠른 속도만을 요구한다. 산업사회에서 시간과 효율, 경쟁과 위기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공업생산은 생산수단의 유동성과 지배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일반 노동자에게 일자리는 농민의 토지와 같은 것으로, 자신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자신의 고향이다. 계속해서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향토의식은 그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된다. 둘째, 공업사회로 전환하면서, 기업(혹은 개인)은 이윤추구를 원동력으로 삼고 적자생존의 시장경쟁에서 점점 잔인하고 무정해진다. 또한, 시장의 참여자로 경쟁이라는 거대한 압력에 놓여 혁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친다. 이렇게 일탈적 사고와 혁신적 사고는 시대 요구에 따라 생겨나고 널리 확산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단지 느낄 수만 있을 뿐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차이가 우호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만, 양측이 더욱 심층적인 소통을 하는데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고, 심지어 상대방에게 베푼 호의가 나쁜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도 당사자는 전혀 모르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 Episode 5. 임종 전 교수대 수리를 요구하는 독일인

반세기 전, 장명린(蔣夢麟) 선생은 이런 글을 썼다. ‘내가 본 독일은 곳곳에 망원경, 현미경, 시험관이 있는 국가이다. 발명에 있어, 독일은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하지만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면, 초점이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인류의 행동이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없다. 독일인은 국제관계나 사람의 감정을 시험관 안에 넣어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지 못한다. 독일인의 장기로, 독일인은 과학영역에서 투철한 탐구정신을 보였고, 세계에 많은 특수한 공헌을 했다. 하지만, 상식의 이해 부재로 인해 자신과 다른 나라 모두 피해를 입었다. 중국인은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능하며, 특히 사람을 대하는 소양을 중시한다. 지식분야에서 중국인의 사물을 대하는 태도로 인해 중국인은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만, 요약과 추상의 중요성을 도외시했다. 중국인은 시인, 예술가, 철학자의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였고, 넓은 마음과 평온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박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은 자연법칙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지 못했다.’

한 민족의 사유방식은 일단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욱 안정된다. 그런 일화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중국인이 죄를 지어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으로 끌려가 교수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교수대가 망가졌고 집행이 하루 뒤로 미루어졌다. 집행관은 이 소식을 죄수에게 통보하면서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라며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고 했다. 그래서 영국인은 얼른 가족에게 자신의 가장 좋은 연회복과 지팡이, 모자를 가지고 오라고 연락했다. 멋있는 신사로 단장하고 최신식 지팡이를 들고 시찰하는 임금처럼 면회실 안을 한 바퀴를 돌았다. 감옥으로 돌아가 고급 위스키를 음미하며 점잖게 일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다. 프랑스인은 끊임없이 연인들에게 전화해 그녀들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그리

고 그 중 가장 아름다운 연인을 불러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로맨틱한 밀회를 했다. 역시 ‘연인의 품 안에서 죽는다면, 죽어서도 근사하다.’라는 말에 어울리는 행동이다. 독일인 차례이다. 독일인은 익숙하게 소매를 걷어 올리고는 공구함을 내밀면서 씩씩거리며 법관에게 말했다 “집행관님, 가족에게 공구함을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두 시간 정도면 고칠 수 있으니, 오늘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인은 이들 중 가장 똑똑하다. 이런 틈을 이용해 일찍이 족쇄를 풀고 도망갔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독일인, 일본인, 중국인이 모두 같은 열차 칸에 타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고 있었다. 가는 도중 한 손님이 어항을 들고 기차에 올랐고, 어항 안에는 아름다운 색깔의 물고기가 한 마리 있었다. 모두 이 물고기를 신기하게 여겼고 독일인이 제일 먼저 물었다. “선생님, 물고기 이름을 말해 줄 수 있겠소?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어떤 과 어떤 종이며,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해 주시오.” 독일인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일본인이 물었다. “선생님, 이 물고기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의 기후나 수온 수질 조건을 봤을 때, 이 물고기가 일본에서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을까요?” 뚫어지게 어항을 바라보던 중국인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런 물고기는 굽는 게 맛있을까? 찌는 게 맛있을까요?” 위의 두 이야기는 우스갯소리에 불과하지만 놀랍게도 각기 다른 나라와 민족과 국민의 정형화된 사유를 잘 묘사하고 있다.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으로 남유럽인과 서유럽인을 비교해보면, 남유럽인은 매우 열정적이지만 꼼꼼하지 않다. 다음 몇 개의 일화는 어떤 측면에서 그들의 이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Episode 6. 국가와 이천영월(二泉映月)<sup>9)</sup>

9) 중국 전통악기인 얼후 음악가 화연권(华彦钧)의 대표작

루마니아인은 천성적으로 낙관적이고 쾌활하다. 루마니아에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즐거운 공동묘지’가 있는데, 묘비마다 망자의 생전의 재미있는 일화나 망자가 가장 좋아하던 유머 한 구절을 새겨놓았다. 다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해 배꼽을 잡고 웃을 수 있다. 망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으니, 여기에서 루마니아인의 낙관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루마니아인의 꼼꼼하지 못한 모습도 직접 겪었다.

루마니아에서 대사임기를 시작한 둘째 날 새벽이었다. 아내와 함께 대사관 앞에 있는 호숫가를 걷고 있었다. 매우 큰 호수로 안개가 자욱하고 지리도 잘 몰라 결국 길을 잃었다. 다행히 루마니아인을 만났고 루마니아어를 하지 못해 그냥 영어로 ‘Chinese Embassy (중국대사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언반구도 없이 우리를 바로 대사관 입구까지 안내해 주었다. 또 한 번은,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2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사관의 차량 한 대가 고장 났다. 때마침 대설로 땅이 모두 얼었고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다. 동승했던 루마니아인이 얼른 군대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로 구조 요청을 했고, 군용 차량과 트레일러를 금방 보내와서 눈보라를 무릅쓰고 차를 수도로 끌고 가 주었다. 루마니아인은 원래 사람에게 친절하며 중국인을 특히 더 좋아해서, 나도 자주 루마니아 친구의 초대를 받았다. 내가 대사 신분으로 마을을 방문 할 때면, 현지 사람들은 전통의상을 입고 마을 입구에서부터 우리를 맞이한다. 이때 중국인에 대한 루마니아인의 각별한 우정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한 루마니아 친구는 루마니아에서 중국을 부정하는 것은 선거에서 표를 잃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중국과 루마니아의 우정은 많은 국민의 우정에 기초하는 것이다.

루마니아인은 천성적으로 낙관적이고 쾌활하다. 루마니아에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즐거운 공동묘지’가 있는데, 묘비마다 망자의 생전의 재미있는 일화나 망자가 가장 좋아하던 유머 한 구절을 새겨놓았다. 다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해 배꼽을 잡고 웃을 수 있다. 망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으니,

여기에서 루마니아인의 낙관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루마니아인의 꼼꼼하지 못한 모습도 직접 겪었다.

중국 국가주석이 루마니아를 방문했을 때이다. 절차에 따라 환영리셉션에서 중국 국가가, 연회가 진행될 때 중국 민속악이 연주된다. 그래서 중국대사관 측은 루마니아정부에 《국가》와 《이천영월(二泉映月)》 CD를 건네면서 순서를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연회가 시작되어 주석께서 환영회 회장에 들어서기 전에 대사관 의전관은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순서를 확인했다. 당시 응접실은 이미 봉쇄되어 있었기에 방송실에 전화를 걸어서 향후 일정을 질문하고, 중국 《국가》를 시범으로 틀어달라고 부탁했다. 아니나 다를까, 걱정하던 것처럼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온 것은 《이천영월》이었다. 담당자는 바로 루마니아 측의 착오를 바로 잡았고, 적시에 발견하여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중대한 실수는 피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대사관 동료가 겪은 일화이다. 구두가 망가져 수선하는 곳을 찾았다. 구두 수선공은 이 중국 친구를 보자 매우 반가워하며 부랴부랴 악수를 청하고 상황을 물었다. 그의 구두를 보더니 이튿날 찾으러 오라고 말하더니, 하던 일까지 멈추고 오랫동안 잡다한 대화를 나눈 뒤에 포옹까지 하고 헤어졌다. 다음날 신발을 찾으러 가자 구두 수선공은 멀리서 걸어오는 그를 알아채고, 가까이 다가와서는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포옹했다. 그리고는 또 한참을 얘기했다. 결국, 구두 얘기를 꺼냈더니, 수선공은 쑥스럽다는 듯 ‘아직 다 수선하지 못했으니 다음날 다시 오라.’ 했다.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수선공은 매번 더욱더 친절하고 열정적이었지만, 구두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결국 구두 수선에는 4일이 걸렸다. 이 일화를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우호적인 태도와 친절이 진심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 Episode 7. 되고 안 되고

아침 식사를 음료로 바꿔선 안 된다. 아침 식사에 음료를 곁들이는 것은 가능하다. 토마토를 파는 것은 안 된다. 하지만, 당신에게 공짜로 몇 개 주는 것은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상황은 외국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독일인들에게 공사의 명확한 구별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루마니아인과 달리 서유럽인은 매우 엄격하고 융통성이 없다. 한 번은 중국대표단이 야간열차를 타고 독일을 여행하고 있었다. 독일의 야간열차는 보통 아침을 무료로 제공하지만, 음료수를 따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막 자정을 넘겼을 때, 다들 갈증이 나서 종업원에게 음료수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아침과 이 음료수를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단칼에 거절당했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갑자기 무언가 탐색하듯 물었다. “그럼 지금 아침 식사는 가능할까요?” 그때는 막 자정을 넘긴 시간으로, 창 밖에는 칙칙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에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침 식사를 주문하면서 음료수도 같이 주문했다.

이 일화는 독일인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며, 규정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처리한다. 그리고 어떤 일은 거절하거나, 처리할 때도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한다. 하지만, 모든 규칙에도 예외는 있다. 어느 날, 내 아내는 규정을 중시하면서도 융통성 있는 독일인을 만났다. 주말에 약속도 없던 손님이 갑작스레 집을 방문했다. 먼 곳에서 오신 손님이 무척이나 반가웠고, 우리는 그들에게 음식 대접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아내는 찬거리를 사러 서둘러 시장에 갔다. 독일의 상점은 보통 저녁 8시에 문을 닫는다. 하지만, 토요일에는 4시에 문을 닫고 일요일에는 영업하지 않는다. 아내는 4시 2분쯤 시장에 도착했고, 대부분 노점이



정리를 마친 후였다. 아내는 서둘러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은 노점으로 가서 말했다. “저기, 죄송하지만 토마토 몇 개만 파시면 안 될까요?” 사장은 시계를 보고는 말했다. “이미 4시 2분이네요. 저희 시장은 4시가 되면 반드시 노점을 정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아내는 집에 갑자기 손님이 와서 그들에게 음식 대접을 해야 한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리저리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부인, 어쨌든 저는 규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처지도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부인은 토마토를 써야 하니, 그냥 제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좋은 것이죠?”

내 아내가 돌아와 이 일을 얘기하자 모두 크게 감탄했다.

#### Episode 8. 간간한 독일인

물론 같은 서유럽에 속하더라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인과 독일인의 성격을 들 수 있다. 독일인은 일 처리가 간간하기로 정평 나 있지만, 프랑스인은 유연한 편이다. 만약 방 안에서 똑같이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프랑스인은 주변을 대충 살펴본 후 포기하겠지만, 독일인은 일단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 살살이 찾아볼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주독일 중국대사관에서 일하면서 독일인의 간간함을 직접 경험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중국에서 온 손님들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길을 잃자, 지나가던 독일인에게 모 기관을 찾는다면 가는 방법과 걸리는 시간을 물었다. 하지만, 독일인은 바로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중국인은 ‘이것이 바로 게르만족의 오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답 듣길 포기했다. 그리고 몇 발자국 걸어가자 생각지도 않았던 그 독일인이 다시 쫓아와 말했다. “앞으로 500미터 정도 가서, 오

른쪽으로 꺾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75미터 정도 더 가면 오른쪽에 그 기관이 있을 겁니다. 대충 10분 정도 걸리겠군요.” 놀란 그들은 신기한 마음에 조금 전에는 왜 대답해 주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러자 독일인이 대답했다. “정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의 걷는 속도를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독일인의 진지함이든 융통성 없는 모습이든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가 직접 겪은 일도 독일인의 간간함을 잘 보여준다. 대사관 직원 두 명이 귀국을 해야 해서 공항을 찾았다. 마침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어쩔 수 없이 모든 항공편이 가장 가까운 뒤셀도르프 공항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독일공항의 세관직원은 외교사절이 가지고 있던 외교우편행낭을 열어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라, 외교사절의 외교 행낭은 면책권을 가지고 있어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뒤셀도르프공항은 외교사절의 접촉이 적어 세관직원이 관련 국제협의를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공항의 책임자를 불러 얘기를 했다. 슈미트라는 공항책임자가 온 후 상황은 빨리 정리되었다. 슈미트는 세관직원에게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라, 그들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자 세관직원이 말했다 “슈미트 씨, 저희가 공항에서 막 일을 시작했을 때, 당신에게 업무 교육을 받았습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조항규정을 저에게 적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독일인의 간간함이다.

독일인의 간간함과 진지함은 생활 곳곳에서 드러난다. 독일의 기차역은 플랫폼이 1, 2, 3으로 나누어져 있고, 모든 플랫폼이 또 A, B, C, D의 몇 구역으로 구분된다. 기차표에도 몇 플랫폼의 어느 구역인지, 열차가 어디서 정차하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다. 예를 들면, 기차표에 ‘모 열차의 12번째 칸은 몇 플랫폼의 C구역에 정차한다.’고 적혀 있다. 열차가 플랫폼에 다가와 정차할 때, 정해진 위치에 멈추면 사람들이 플랫폼 위를 옮겨 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이다. 항공권에는 편명, 좌석번호가 적혀 있고 어느 구역인지 적혀 있을 때도 있다. 탑승 시, 직원들은 승객을 1, 2, 3, 4구역으로 나누어 줄을 서게 한 후, 순서에 따라 탑승하게 한다. 이로써 앞쪽에 승객들은 통로에 짐을 놓고 서 있지 않아도 되고, 뒤쪽의 승객들은 비좁게 몰려 있지 않아도 된다. 독일의 버스 시간표에도 몇 시 몇 분에 출발하는지 분명하게 적혀 있다. 오차 시간도 보통 2분 안팎이라 많은 사람은 제시간에 버스를 타기 위해 서두른다. 모두 자발적으로 표를 사거나 카드로 교통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평소에 검표하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만약 무임승차가 발각되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엄격함은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고, 독일의 기차는 정거장마다 1~2분만 정차한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서 상상하기 어렵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인구가 적은 것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독일인의 끈끈함과 진지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 Episode 9. 90분과 108분

90분과 108분은 18분 차이로, 어떤 이에게는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독일인과의 어려운 협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짧은 시간의 심오함을 느꼈으며, 이 차이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독일인은 평소 시간관념이 철저하며, 이것이 독일 민족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독일인과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야 한다. 늦게 도착해도, 일찍 도착해도 안 된다. 만일 일찍 도착했다면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약속 시간이 되면 들어간다. 차가 막혀 늦게 도착하면 반드시 먼저 전화해서 ‘몇 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말해야 한다. 독일에는 ‘시간을 지키는 것은 국왕에 대한 예의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만 보더라도 독일인이 시간준수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독일의 기차역에는 많은 시계가 있고 기차 안 좌석에는 손님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기차의 동반자’인

열차 시간표가 비치되어 있다. 기차가 역에 정차할 때 어떤 역이라고 따로 방송이 나오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시간을 보고 지금 어떤 역에 정차해 있으며 본인이 언제 내려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가끔 독일인과 담판 혹은 협상 시, 그들의 지나친 세심함과 진지함에 서론이 길어져 골치가 아팠다. 예전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 몇 개국을 순방한 적이 있었다. 관례에 따라 독일 외교부의 의전팀과 독일 일정을 논의한 후, 대강의 일정을 중국 정부에 브리핑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몇 가지를 지적했고, 그중 한 가지는 환영 만찬의 시간이 108분으로 너무 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독일 측에게 만찬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독일 측은 바로 가능 여부를 말하지 않고 느긋하게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며 말했다. “존경하는 대사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만찬에 독일 측에서 모두 36명이 참가합니다. 중국 측 주빈께서 도착하시면 36명이 모두 한 줄로 서서 인사를 하면, 한 사람당 15초가 걸릴 것입니다. 36명이니까 9분 걸리겠죠. 그리고 관례에 따라 다들 일어나 간단한 인사말을 한 후 착석을 하면 또 9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술을 따르고 전체 요리를 가져다 드리는 데 10분, 그 후 수프와 주요리를 먹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0분으로, 모두 60분이 소요됩니다. 주요리를 다 드시고 나면, 독일대표께서 통역을 통해 환영사를 발표하면 약 5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후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데 15분 정도 걸릴 테니 총 시간은 대충 108분 정도가 예상되며, 여기에서 단 1분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고,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돌아와야만 했다. 둘째 날, 다른 일정을 상의하다가 결국 같은 문제에 봉착했다. 어떻게 해도 독일 측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했다. “일단 90분에 맞춰서 준비해보고 안 되면 108분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저희도 중국 정부에 보고해야 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독일 담당자는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18분의 차이는 무척 큼니다. 여러 번 계산해 봤지만, 시간 단축은 불가능합니다.”

소득 없이 대사관으로 돌아와 이웃 나라 중국 영사관 측과 통화하면서 일정 상

답에 관한 얘기를 했다. 그들은 아직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에 놀라면서 자신들은 10분 만에 모두 결정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환영 만찬은 장장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고, 독일에서의 환영연회는 약속한 108분 안에 끝났다.

독일인과의 협상과정은 무척 까다롭지만, 일단 협의를 달성하고 나면 그들은 성실하게 이행한다. 계약과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일인의 태도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나는 가끔 그들이 ‘귀여운 네모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독일인이 자세한 뜻을 설명해 달라고 하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일인의 깐깐한 일 처리와, 규칙준수를 가리켜 ‘귀엽다’라 표현한 것이며, 융통성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쉬워서 이것을 ‘네모’라 표현한 것입니다.”

Episode 10.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밝히다.

중국인은 물건을 팔 때, 자신의 물건이 좋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독일인은 이와 정 반대로 행동한다. 자신의 물건을 과장하여 말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으면 반드시 스스로 밝힌다. 이런 ‘바보 같은’ 독일인이 일부 ‘눈치 빠르고 총명한’ 장사꾼 눈에는 미련한 사람으로 비친다. 독일인은 자신의 물건이 팔리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걸까?

엄격함과 성실함은 신용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신용을 지키자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신용은 무역인의 기본 덕목으로 전 세계에서 통용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용을 지키는 것은 일종의 생산력이자 무형자산으로, 유명 상표로 거듭나기 위한 도덕적 기초이기도 하다. 내가

직접 경험한 한 일화를 통해 ‘신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 대표단과 독일의 유명한 의류 공장에 실사를 갔을 때였다. 공장입구에 대형 의류 판매장이 있었는데, 하자가 있거나 다림질이 안 된 의류를 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다. 공장 답사를 마친 후, 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던 중국 대표단 중 한 명은 마음에 드는 정장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에게 잘 어울리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서 망설이지 않고 구매를 결정했다. 계산하려 하자, 종업원이 가격표를 살펴보니 하자가 있는 상품이므로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고 말했다. 깜짝 놀라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모습을 본 종업원은 정장 위쪽의 작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낸 후, 설명서를 가리키며 왼쪽 소매 20cm 아래에 바느질 선이 어긋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하게 살펴보니 종업원이 말한 것과 같았지만, 얘기하지 않았다면 보통 사람들은 알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인은 물건을 팔면서 자신의 물건을 자화자찬할 뿐 그 반대의 경우는 드물기에 이러한 상황이 너무 놀라웠다.

하지만, 독일인은 중국인과 정반대이다. 자신의 물건을 과장하여 말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으면 반드시 스스로 밝힌다. 이런 ‘바보 같은’ 독일인이 일부 ‘눈치 빠르고 총명한’ 장사꾼 눈에는 미련한 사람으로 비친다. 독일인은 자신의 물건이 팔리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걸까?

그날, 결국 우리는 양손 가득히 옷을 사서 돌아왔다. 현재 이 상표는 중국에도 들어왔고 제법 잘 팔린다고 한다. 이 상표가 바로 휴고보스(Hugo Boss)다.

엄격하고 성실하며, 규정을 준수하고, 신용을 지키는 것은 사고방식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현재 중국이 대대적으로 제창하고 있는 ‘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독일에는 경찰 수가 매우 적는데, 특히 중소도시에는 그림자도 보기 어렵다. 그러니 길마다 신호등 밑에 경찰이 서 있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버스에도 표를 팔고 검표하는 매표원이 없으며, 모두 양심적으로 버스비를 낸다. 주차장도 대부분 무인 주차장으로, 운전자가 스스로 자동 매표소에서 주차권을 끊

어 차 앞에 있는 유리에 놓는다. 이러한 행동은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효율은 크게 높인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중국에서도 가능할까? 교통경찰이 없다면 운전자와 행인들은 색맹처럼 마음대로 신호등을 건널 것이다. 게다가 표를 팔고 검표하는 매표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버스회사는 무임승차로 매년 큰 손실을 본다고 한다.

매년 3월 15일<sup>10)</sup>, 중국 대부분 언론매체에서 커피상품에 대한 폭로기사가 쏟아진다. 그 많은 기사를 보면 놀란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가짜에 속지 않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준법의식이 낮기 때문에 신호등같이 이미 알고 있는 규범을 유지할 교통경찰이 필요하며, 다들 알고 있는 규정을 집행하고 지키게 해줄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이 늘어난다. 다시 말하면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부담을 스스로 짊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모두가 질서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 Episode 11. 고지식한 독일인

독일인은 성실하고 규율을 잘 준수하며, 질서유지를 중요시하고, 엄격하기로 정평이 났다. 하지만, 고지식한 구석도 있다. 만약 합당한 권리라 해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나약하다거나 혹은 원래부터 합당한 권리가 아니었다고 여기지 겸손한 행동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독일인은 성실하고 규율을 잘 준수하고, 질서유지를 중요시하며, 엄격하기로 정평이 났다. 하지만, 고지식한 구석도 있다. 한 번은 루프트한자 항공 국내선을

10) 중국 소비자 권익의 날. 국제 소비자 권익보호의 날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국 소비자 협회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TV홍보 방송 등 대대적인 각종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을 실시한다.

타고 다른 지역을 간 적이 있었다. 내가 탑승했을 때는 이륙준비가 모두 끝난 후였고 착석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기내에서는 마음대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 좌석은 비행기 앞쪽의 일등석이었는데 일등석에는 고작 승객 몇 명만이 앉아 있을 뿐, 대부분 좌석은 비어 있었다. 내 자리가 있는 줄이 모두 공석인 것을 확인한 후, 아무 자리나 골라 앉고 이륙하기를 기다렸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약 십 여분이 지났을 때, 뒤에서 한 남자가 내 옆으로 걸어와 나를 훑어보더니 정중하게 말했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앉아계신 이 자리는 원래 제 자리입니다만, 이미 앉으셨고 저도 다른 곳에 앉으면 되니까 일어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좌석을 잘못 찾았다는 것은 꼭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독일인은 이렇게 고지식한 본성을 자주 드러내며, 처음 이것을 접한 외국인은 지나치게 참견한다는 인상을 받기도 한다. 대사관 차를 끌고 다른 지역으로 업무를 보러 갔을 때였다. 급히 일을 처리해야 했지만 한참을 돌아도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자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만한 구석진 곳에 차를 주차하기로 했다. 차 문을 막 잠그고 있을 때, 한 독일 아주머니가 와서는 이곳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무리 사정을 설명해도 꿈쩍하지 않았고 기어이 차를 빼는 것을 보고서야 자리를 떠났다. 어쩔 수 없이 십 여분을 더 돌고서야 주차할 곳을 찾을 수 있었다.

때때로 유학생과 화교를 포함한 국외에 있는 중국인들은 자신이 정당한 경우라도 법률수단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에게 좋은 방법을 택하거나, 정당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인과 독일인은 강직하고, 근면하며, 근검절약할 줄 아는 위대한 민족이지만, 양국의 민족성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동양인은 겸손과 양보가 전통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서양인은 자신이 정당하면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정당한 권리인데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나약하다거나 혹은 원래부터



정당한 권리가 아니었다고 여기지 겸손한 행동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 Episode 12. 현대판 닥터 베크

한 독일부부는 장애가 있는 중국 여자아이를 입양하고, 많은 노력과 자금을 투자해 그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

독일 민족은 이성적이고 엄격하기로 유명하지만, 1930년대 광기의 파시즘 때문에 악명이 남았다. 그 비이성적 사상은 하마터면 전 세계를 멸망시킬 뻔했다. 독일인은 이성적이면서도 비이성적인 모순을 가진 민족이다. 완벽을 추구하는 철두철미한 일 처리로 자국 상품의 질을 최고로 끌어올려 순식간에 세계 무역대국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독일인의 지나친 엄격함과 융통성의 부족함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심어주기도 한다. 그래서 가끔 사업상 상대들은 그들과 협력하면서도 어려움을 토로한다. 독일인은 뛰어나고, 자부심이 강하며 심지어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민족이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빠르게 사회적 시장경제의 궤도에 진입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빠르게 안정되었다. 또한, 특유의 근면 성실과 투철한 직업의식 및 훌륭한 교육과 직업훈련으로 빠른 속도로 경제기적을 이루었다. 현재 독일은 유럽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국가이며, 프랑스와 영국을 훨씬 뛰어넘는 경제규모로 세계무역 2위, 종합국력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역사 탓에 자신을 부각하지 않게 되었고, 많은 일을 조용히 처리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것은 정치 무대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몇 달 전, 텐진에서 지방정부의 관료와 독일 기업가 두 분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의외로 독일 기업가 중 한 분이 5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 그가 도착하자 나는 앉은 채로 두 분을 소개했다. “이분은 독일 롤(LLULL) 그룹의 중국지사 대표이시고, 이분은 롤 그룹 계열사 CEO인 프로이트 선생이십니다.” 막 도착한 프로이트 선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둘러 사람들에게 사과했다. 독일인에게 5분 지각은 큰 결례이므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1년 전 그는 아내와 함께 중국 보육원을 방문하고, 장애를 가진 한 여자아이가 거칠게 숨을 쉬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으며, 간과 폐도 좋지 않아 부모가 병원에 유기했고, 그 뒤로는 보육원에서 맡고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보육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아이의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것뿐이었다. 의사는 아이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되자 마음이 편치 않았고, 아이의 병을 고쳐 주기로 했다. 그 뒤로는 아이를 데리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지만, 번번이 치료할 수 없다는 답변만이 되돌아왔다. 수소문 끝에 독일의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데려갔다. 하루 병원비는 1,000유로, 수술비는 4,5000유로로 독일에서도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었다. 결국, 그들은 주변에서 수술비를 모아 이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늘은 뜻있는 자의 손을 놓지 않았고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한 살 된 중국 여자아이는 완치되어 퇴원하였다. 그는 이번 중국방문길에 이 여자아이를 동행했고, 아이와 함께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이 순조롭지 않아 5분 늦었다고 말했다.

이 얘기를 들은 우리는 크게 감동했고, 어떤 이는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현대판 닥터 베키’이라며 기사화시켜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그런 의견에 프로이트 선생은 조용히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나를 언급하지는 마십시오. 올해 60살이 된 나는 20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10살이 되었을 때, 나는 70세가 될 텐데, 그때도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함께 그녀를 지켜줄 젊은분을 찾고 있습니다. 같이 그녀를 키우고, 그녀

에게 오랫동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프로이트 선생의 선행에 나는 크게 감동했다. 나는 그에게 무엇 때문에, 어떤 생각에서, 이런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답변은 매우 간단했다. “그 애도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동정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다. 이 말을 듣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입양하는 중국가정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 ‘자식이 없어서 아이를 바라거나, 여자아이만 있어 아들을 바라는 가정’처럼 다들 현실적인 필요로 아이를 입양한다. 게다가 입양하면서도 수차례 고민하고, 수차례 아이를 골라서, 결국 귀엽고 똑똑하며 건강하고 활발한 아이들을 선택한다. 이런 것만으로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행위지만, 프로이트부부와 비교했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다.

### Episode 13.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가

어떤 서양인은 이타주의 60%, 이기주의 40%의 비율로 이루어져야지만 완벽하고 합리적인 인성이라고 말했다. 인류는 서로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대해야 하며, 이런 사회만이 화합하고 안정될 수 있다. 이타주의는 일반인이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내면적 동기를 사람들에게 부여하지 못한다. 개인의 노력 없이는,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사회도 발전할 수 없다. 하지만, 내면적 동기와 개인의 노력만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익의 분배와 협력이 없다면 사회는 바로 혼란에 빠지게 되며 결국 발전할 수 없게 된다.

정치가, 기업가, 학자, 종교인사 등 여러 독일인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이기주의는 영어로 egoism이며, 불어로 egoisme, 독어로 egoismus이다. 이타주의는 각각 altruism, altruidme, altruismes이다. 단어의 유사성으로

볼 때 두 개념 모두 고대 그리스어 혹은 라틴어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또한, 유럽인들이 매우 일찍부터 이기주의 문제를 연구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관점은 대략 다음 몇 가지로 귀결할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신경 생물학 교수는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이 이기적인 것은 생존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식물은 성장하기 위해 다른 식물들과 햇빛, 물, 공기, 토양 등을 두고 경쟁해야만 한다. 동물은 생존영토와 음식을 얻기 위해 상호경쟁하며 먹고 먹힌다. 인류는 다른 동물과 다르지만, 동물계의 일원으로 이기적인 본성 또한, 지니고 있다.

한 의원은, 이기주의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사유제는 이기주의에 부합하고, 인간의 본성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한다. ‘이기주의는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에 대해 나와 토론했던 사람마다 모두 각각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많은 사람은 이기주의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기주의는 한 사람의 강렬하고 원대한 포부의 원천이자 강한 내적 추진력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무궁한 미지세계를 발명하고 창조하고 탐구한다. 아무런 이익이 없다면 그런 열정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견해도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기주의는 부정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사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며,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인간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

세 번째 문제는 ‘이기주의에 경계선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다. 즉, 이기주의는 일정한 범위로 제어할 수 있다면 유익하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면 유해한가의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기주의라도 인간에게 유해하지 않다면 받아 들일 수 있는가?’로 정리할 수 있다.

한 종교인과의 대화에서 그는 자신의 관점을 제시했다. 즉 이기주의는 교육을 통해서 감화시키고 억제할 수 있지만, 근본을 철저히 제어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위해서 어진 마음으로 서로 도와야 한다. 또한, 법률적인 통제를 통해 인간의 행동을 규제해야 한다. 천주교에서도 인간은 원래 죄가 있다고 하며 끊임 없이 신에게 회개하려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 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견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필연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이며, 대다수를 위해서 이타적이라는 것이다. 벤츠 형제가 자동차를 발명하고,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웠을 때, 최초의 동기는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자동차 시대의 출현과 인터넷 시대의 도래를 이끌어 내어 사회에 큰 공헌을 했다. 이처럼 개인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위해 부를 창조하기도 한다. 사회 전체 부의 증가는 개인의 사업발전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제공한다. 음악가가 창작하거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것은 자신의 내적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청중을 즐겁게 한다. 태양은 인류를 위해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에 의해 내부 입자를 운동한 결과, 빛나고 있다.

나는 물론 지금까지 제시한 이기주의에 대한 독일인의 관점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 중국인에겐 중국 전통의 도덕관념이 있다. 중국은 ‘천하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며, ‘사심 없이 공헌하고’, ‘개인은 집단에 복종’하고, ‘작은 것은 큰 것에 복종’하며, ‘큰 강에 물이 있어야 작은 강도 물이 찬다.’라는 생각을 중요시한다. 또한, 중국도 개인의 이익을 배척하지 않으며, 이익창출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인간의 적극성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강조하는 인본주의는 바로 인간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인간에게 관심 갖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래서 중국인은 사업, 감정, 대우의 세 요소를 적절하게 결합하여 사람을 잘 곁에 두며, 그들을 잘 활용한다.

물론 이런 철학적인 문제에는 관점의 차이도 있고, 문화와 사유방식의 차이도 있다. 중국은 ‘착한 사람, 좋은 일’을 표창하고, ‘선진’이 ‘후진’을 이끌어 줘야 한

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양인들은 낙후된 곳은 도태시켜야 하며,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 되는 것과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대하는 동서양의 시각이 다른 것이다. 예전 중국의 모 신문에 어느 시의 지도자가 시민을 동원하여 2년간 쌓여온 쓰레기를 깨끗이 치웠다는 기사가 실렸다. 긍정적인 기사라고 생각하여 게재한 것이지만 독일인의 시각에서는 부정적인 기사에 속한다. 그들은 쓰레기가 어떻게 2년 동안 쌓아 두었다가 이제야 치웠으며, 평소에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인 ‘이기주의’도 쓰레기처럼 치워야 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동서양의 견해 혹은 관점이 조금 다르고,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비록 그들의 사유방식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인의 철학적인 사유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 Episode 14. 유럽인이 보는 중국

유럽인이 보는 중국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유구한 문화를 가진 국가로 존경스럽다. 둘째, 아득한 곳에 있어서 매우 신비한 느낌이 든다. 셋째, 최근 몇 년 동안 큰 발전을 했지만, 그래도 유럽보다 낙후된 곳이다. 하지만, 대부분 ‘중국통’은 외국인이 중국인과 같이 일하려면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사실, 대부분의 유럽인은 중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에 신기해하고, 이상하게 여기기도 한다. 중국에는 ‘아이를 적게 낳고 나무를 많이 심자. 빨리 소강사회로 들어가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간부 직선제를 완수하자.’, ‘현(縣), 향(乡), 촌(村) 3계급 함께 농촌기층을 조직하고, 지역경제를 진흥하자.’, ‘각 급 지도자의 방문을 환영한다.’등등

의 정치 구호가 곳곳에 걸려 있다. 전문용어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왜 그동안 나무를 심지 않았고, 왜 민주주의 발전을 제창해야 하는지’ 등의 의문이 끊임없이 생긴다.

한 유럽 친구가 진정으로 중국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다시 유럽에 알린 사람이 유럽인이 3명 있다고 알려주었다. 13세기의 마르코 폴로, 16세기 마테오 리치, 현대의 조셉 니덤으로, 앞에 두 명은 이탈리아인이고 마지막 한사람은 영국인이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인은 중국인의 사고방식이나 특징을 잘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중국인과 거래하는 유럽인은 대부분 중국인의 인내심을 따라가지 못한다. 유럽인은 중국방문 전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중국의 최근 국가발전 상황을 이해하고 숙지한다. 심지어 어떤 이는 현지의 한학가(漢學家)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기도 한다. 이런 ‘중국통’은 외국인이 중국인과 같이 일하려면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일을 해온 유럽인들은 모두 이 말에 공감한다.

나는 궁금한 마음에서 평소 친분이 두터운 유럽친구를 찾아가 인내심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다. 한 친구가 먼저 대답을 해주었다. “유럽인들은 ‘시간이 금’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을 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은 여유롭게 먼저 우정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후에는 날씨 얘기를 하는 등, 서론이 길어지죠. 물론 이런 말들이 확실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만, 더 길어지면 상대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중국인과 한 가지 사항에 관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도,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결정권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때부터 끝이 안 보이는 마라톤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친구가 말한다. “중국 측은 때때로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하는데, 1-2주나 한두 달이 지난 후에 다시 물어봐도 여전히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도대체 ‘적극 검토’와 ‘소극 검토’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원성을 들은 후 나는 입을 열었다. “이것은 인내심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각 부서 책임자의 관료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정부도 느린 일처리와 복잡한 수속의 문제를 느끼고 있으며,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셨나요?” 이에 그들은 확실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인내심에 관해서는 여전히 중국인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일과 관련된 얘기는 제쳐두고, 말하는 방식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동작 및 손짓같은 감정표현까지 유럽인과 많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그저 느낄 수만 있습니다. 유럽인은 쉽게 흥분하고 급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모든 유럽인이 이렇다고 정의내릴 수는 없습니다. 북유럽인과 남유럽인 또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민족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는 없으며 이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이가 생겨난 원인은 지역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기후, 일조량과 관련이 있으며, 농업사회의 여유로운 생산경제와 산업사회의 빠른 생산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민족 사유방식의 차이가 나타났고, 다른 시간관념과 효율관념 등이 생긴 것입니다.”

언어에 따라 사람의 심리 반응속도가 차이난다는 미묘한 해석을 듣기도 했다. 중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럽 친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의 문자는 일반적으로 26개의 자모로 이루어져 있어,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한 두개를 하는 것이 유럽에서는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의 문자는 유럽의 문자와 많이 다릅니다. 《강희자전(康熙字典)》에는 6만개의 한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상용자는 3000자 이상으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 글자 한 글자씩 외웁니다. 또한 중국어는 배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글자인 것 같습니다. 한자 또한 언어와 예술이 서로 결합된 오래된 문자로, 한자의 서예는 세계에서 유일한 것입니다. 중국문자는 어렵기 때문에 유럽인이 어떤 일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 일은 중국어 같군요.”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문자는 독특한 기



능을 하는데, 바로 민족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중화민족은 장장 수천 년 동안 그 명맥을 이어 오면서도, 다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문자의 통일이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는 중국인의 인내심에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인은 어렸을 때부터 한 글자씩 또박또박 글씨를 쓰고, 수천 개의 한자와 단어를 외워야 합니다. 인내심 없이 중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중국에는 ‘십년공부’라는 말이 있죠? 십년공부가 바로 인내심을 키우는 요람입니다.”

신기하고 신선한 설명이었다. 생각해보면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지만, 유럽인에게 있어서 중국어와 한자를 배우는 것은 청렴한 관료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나에게도 재미있는 일이 여러 번 있었었다.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유럽에서 유명한 한학자이자, 《적공안(狄公案)》 작가인 로베르트 반 홀리크 선생을 초대해 대사관에서 영화를 보았다. 그는 당시 주일본 네덜란드 대사였는데 중국어를 매우 잘했다. 그분 일행으로는 그의 제자와 네덜란드 한학원 원장이자 한학자인 사람이 왔다. 오랜 친구를 만나니 더 반가와 기쁘게 인사를 건넨 후, 맨 앞줄의 중간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러자 한학원 원장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소(豈有此里)”라고 말했다. 사실 이 말은 ‘이치에 어긋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중국인들은 모두 당황했다. 하지만 잠시 후 웃음이 터져 나왔고, 이것을 본 그는 자신이 잘못 말한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나의 설명을 들은 후에야 상황을 이해하고 재미있어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가 베이징 시단에 갔을 때, 거리의 입구에 있는 집 앞에 “입안에 화장실이 있다(口内有廁所)<sup>11)</sup>”라고 적혀있는 작은 팻말을 보았다. 그는 그 팻말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어떻게 입안에 화장실이 있을까’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중에 현지 사람에게 그것이 ‘골목 입구 안에 화장실이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듣고 중국어는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11) 口 : 사람의 ‘입’이라는 뜻도 있으며, 어떤 곳의 ‘입구’라는 뜻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다 보니 처음 네덜란드어를 배웠을 때가 생각이 난다. 주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로, 당시 나는 독일어만 할 수 있었을 뿐 네덜란드어는 한마디도 못했었다. 어느 날 중국봉사단을 데리고 네덜란드 행사에 참가했다. 네덜란드측 담당자가 나를 처음 보자마자 물었다. “오늘 영어로 얘기할까요? 아니면 독일어나 프랑스어도 괜찮습니다. 아마 네덜란드어는 분명 모르실 것이고, 중국어는 저희가 못하니까, 이 세 가지 언어 중에서 편한 것으로 선택하세요.” 이 네덜란드인의 언어에 대한 우월감과 오만함은 나를 강하게 자극시켰고, 네덜란드어에 매진할 수 있는 강한 동기를 만들어 주었다. 당시 나는 독일어라는 기초가 있었고 주변 어학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1년 후 네덜란드어를 어느 정도 마스터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다시 그 오만한 네덜란드인을 만났고, 예전 내가 당한대로 갚아주기로 했다. “오늘 우리 네덜란드어로 얘기할까요? 아니면 영어나 독일어도 괜찮습니다. 아마 중국어는 분명 모르실 테니까요.” 놀라는 그들을 보며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고, 1년 동안의 고생이 이 순간에 보상받는 것 같았다.

언어와 사고방식의 관계를 얘기하자면, 독일어도 배우기 힘든 언어인 것 같다. 입문과정이 특히 어려운데, 독일어의 명사는 남성, 중성, 여성으로 나누어지며, 목적어는 1,2,3,4격으로 되어있다. 또한 하나의 동사가 십 여 가지 형태로 변화하며, 형용사의 접미사 또한 뒤에 오는 명사의 성질에 따라서 변하고, 어법도 무척 복잡하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만 익히면 이런 어법들 하나하나가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서, 이것을 따라 가기만 하면 쉽게 길을 잃지 않는다. 외국인은 중국어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어가 매우 쉽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한자가 상형문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몰라도 대략의 뜻을 짐작할 수 있고, 그 중 십중팔구는 정답이다. 또한 어법의 규칙이 없고 어떻게 말해도 모두 괜찮다. 하지만 이것이 외국인에게는 중국어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요인이 된다. 외국인이 이해하기 힘든 함정이 도처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東西’는 분명 방향을 가리키는 말인데 왜 갑자기 사물을 가리키는 뜻이 되며<sup>12)</sup>, 사람은 방향이 아닌데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왜 사물(東西)은 순

12) 東西: [명사] 동서. 동쪽과 서쪽.

식간에 욕으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

독일어의 특징이 엄격하고 성실한 독일인의 성격을 만들었고, 또한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중국어는 중국인의 함축적이고 포괄적인 사고방식을 길러낸 것이 아닐까? 만약 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pisode 15. 중국인은 정말 선물에 관심이 없을까?

중국인과 외국인이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종종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외국인들은 재빨리 선물을 풀어 이리저리 살펴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는 연신 고맙다고 말하고, 친분이 있는 이들은 포옹을 하기도 하는데, 중국인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의 선물을 못 미더워서 현장에서 검사라도 하는 것일까? 하지만 중국 사람은 보통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 후, 숙소에 돌아갈 때까지 선물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가만히 나둔다. 이것은 외국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중국인은 정말 선물에 관심이 없는 걸까?

선물의 형식으로 서로 예의를 표현하는 것은 옛날부터 존재했다. 국제무대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이런 교류의 보편적인 방법이다. 예를 중시하는 나라인 중국은 선물을 줄때 여러 가지를 중시한다. 그 중 하나는 선물을 주는 이유이다. 혼례와 기념일, 출산 이외에도, 승진이나 입학 등 여러 가지가 선물을 주는 이유가 된다. 또 다른 것은 선물을 비교적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예는 아무리 과해도 나무라지 않는다’ 라는 말에 부합한다. 공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 노(魯)나라의 왕이 잉어(鯉魚) 한 마리를 선물로 보내 득남을 축하

[명사] (구체적인 혹은 추상적인) 것. 물건. 사물. 물품.

[명사] 늬. 자식. 새끼. [주로 동물이나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담아 부를 때 쓰임]

를 했다고 한다. 공자는 이에 크게 감동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리(鯉)”라고 지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선물을 주는 이의 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오늘날 중국인들은 실용적이거나 귀한 선물을 더 선호한다. 예를 들어 혼인, 출산 등의 경사에서 많은 사람들은 관례에 따라 ‘홍bao(紅包)<sup>13)</sup>’를 준비 하고, 그 안에 상황에 맞게 현금을 넣는다. 외국귀빈에게 하는 선물은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쓴다. 귀중한 선물이 아니면 자신들의 마음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럽인은 기본적으로 ‘선물은 보잘 것 없지만, 정성은 깊다’ 라는 생각에 중점을 두고 선물을 준비한다. 선물의 실용성이나 가격보다 포장하는데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선물의 외관과 문화적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국의 민족특색이 있는 기념품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의 정교하게 인쇄된 화첩은 우아하고 귀중한 선물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식품이나 생활용품은 선물하지 않는다. 가전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방문한다고 해도 그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선물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 회사 마크가 표시된 만년필이나 화첩을 선물한다. 그들이 인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기회사의 제품을 선물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물에 있어 중국과 다른 이런 습관은 때때로 오해를 사기도 한다.

예전에 중국대표단이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였다. 네덜란드측은 방문단 단장에게 네덜란드의 저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화첩을 선물로 주었고, 다른 단원에게는 필립스 전기면도기를 선물했다. 숙소로 돌아온 후, 단장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선물을 본 후, “어째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었을까? 잘못 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어쨌든 화첩을 선물하다니 너무 인색하네.” 라고 생각했다. 사실 화첩은 유럽에서는 최고급 선물로 보통 귀빈에게만 선물한다. 한번은 네덜란드측이 중국대표단의 여자직원에게 아름답고 화려한 포장의 휴대용 반진고리를 선물했지만, 이 직원 역시 선물의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13) 붉은 봉투로, 많은 경사가 있을 때 돈을 담는데 쓰인다.

표면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마음은 동서양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비교적 복잡한 문제로, 일단 선물을 하는 동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선물을 받을 때의 환경, 선물을 한 사람과의 관계나 선물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받은 이의 느낌도 일단 접어두기로 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다.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는 보통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 흔하고 평범한 일이었지만, 그 후의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중국대표단이 성공적으로 네덜란드 방문을 끝내고 출국하기 직전 감사연을 열었다. 연회에서 다들 즐거워했고, 분위기도 한껏 고조되었다. 연회가 끝날 때 즈음, 중국대표단은 네덜란드의 따뜻한 접대와 세심한 배려에 감사표현을 하기 위해 연회에 참가한 네덜란드 관계자 네 분에게 선물을 드렸다. 네덜란드 관계자는 선물을 받자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다. 그리고는 중국측이 선물한 중국전통의 실크양면자수를 살펴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도 사전에 준비한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을 중국대표단에게 건넸다. 중국대표단은 선물을 받은 후 감사인사를 하였다. 하지만, 선물은 연회가 끝날 때까지 포장된 그대로 쇼핑백에 담겨 있었다.

다음날 대표단은 네덜란드 관계자의 배웅을 받으며 귀국 길에 올랐다. 대표단이 떠난 후, 공항을 막 떠나려는데 네덜란드 관계자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중국대표단은 이번 방문에 만족했나요?”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그는 또 다시 물었다.

“선물은요?”, “여러분이 선물한 기념품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던데요.”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상하다는 듯,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냐고 되물었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조금 신경이 쓰여서요. 우리는 오랜 친구니까 말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괜찮다고 말하자 그는 입을 떼었다.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선물을 드렸을 때, 중국대표단은 왜 아무도 선물을 열어 보지 않은 거죠? 선물이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불만이 있는게 아닐까 걱정이 들어서요.”

나는 곧바로 중국인은 보통 선물을 현장에서 풀어보지 않으며, 숙소로 돌아간 후 선물을 풀어보고 매우 기뻐했으니, 절대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내 말을 듣고 그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이런 질문을 받게 되자, 첫날 동반했던 대표단 한 명이 숙소로 돌아와서 했던 질문이 떠올랐다. 그는 “네덜란드 사람은 왜 선물을 받자마자 바로 우리의 선물을 풀어보는 거죠? 설마 우리의 선물이 못 미더워서 인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이곳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선물을 받자마자 현장에서 바로 풀어 감상하고 감사인사를 한다고 말해주었다. 이는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선물이 못 미더워서 하는 행동이 아니며, 만약 선물을 풀어보지 않고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면 아마도 그것이 거짓말일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런 행동은 네덜란드 사람만이 아니라, 유럽인 대부분의 특징이다.

이런 소소한 일을 통해 사람과 사람사이 특히, 다른 문화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알게 되는 것은 쉽지만,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현대화와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달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크게 변했다. 50억 명의 인구가 모여 있는 지구는 ‘지구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서로 다른 국가와 민족, 문화권 간의 상호교류도 나날이 빈번해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말하면서 종종 표면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정면에서 바라본 문화는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그러나 문화의 진실은 수면아래 깊은 곳에 숨어 드러나지 않는 빙하와 같다. 그러므로 외국인과의 소통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빙산이 가득한 해수면을 지나가는 것처럼 더욱 신경 쓰고 주의하여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짜 ‘암초에 부딪히는 것’과 달리 문화충돌의 경우 쉽게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부딪혔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선장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

는 듯, 현재 안전하게 앞으로 향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정’이라는 배가 침몰할 때가 되어서도 당사자는 여전히 영문도 모른채 어리둥절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깊이 있게 서로를 이해하는 것으로 더 자주 교류하고 더 많이 소통하여 표면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그 뒤에 숨겨진 문화의 함의나 사고방식, 심리특성과 가치관 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각기 다른 문화에서 형성된 이런 사고방식, 심리특성, 가치관은 수면아래에 있으면서,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거대한 빙하를 이루었으며, 이것이 바로 혹자가 말하는 ‘대문화’이다.

#### Episode 16. 악수에 왜 반감을 느끼나?

손을 들고 발을 옮기는 것은 간단한 사지운동으로 표면적으로는 동서고금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동서양의 큰 차이가 존재한다. 서양인이 친구를 만났을 때, 포옹을 하고 얼굴에 가볍게 입맞춤하는 것은 매우 평범한 일이다. 이미 습관화 되어 있어 어느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인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여기서도 동서양의 차이가 엿보인다. 악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를 표하는 행동으로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악수를 하면서 친근함과 포용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나는 악수 탓에 상대방이 강한 반감을 갖게 된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

악수의 기원은 유럽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사들은 여인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결투를 하면서 결투 전에 공정성과 기사정신을 보여주기 위해 악수를 했다. 이는 손안에 무기나 날카로운 물건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악수의 기원에는 상호 믿음과 우호, 그리고 한편으로 적에 대한 경계심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악수는 적에 대한 경계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믿음

과 우호의 의미만이 남았다.

실제로 악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에 대한 지식은 많이 존재한다. 특히 외교무대에서 악수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척 많다. 주동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동적으로 할 것인지, 약하게 쥘 것인지 세게 쥘 것인지, 시간을 길게 할 것인지 짧게 할 것인지 등등이다.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트랩 위에서부터 주은래(周恩來)주석에게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한참동안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중미관계의 화해를 상징하는 이 일화는 외교 분야에서 유명한 일례가 되었다. 또한 악수할 때 어느 곳을 응시해야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예술단이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였다. 나는 예술단의 2주 일정에 모두 동행했다. 예술단은 네덜란드의 일부 도시에서 십 여 차례 공연을 하였고, 현지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예술단을 도왔던 네덜란드인 안센선생은 이에 매우 만족해하면서 이번 협력이 무척 즐거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양측은 장기협력에 관한 협의를 체결했다. 중국대표단이 귀국하기 전, 이번 방문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준 네덜란드 측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의미에서 중국측은 감사연을 열었다. 친히 동행해준 안센선생에게 특히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감사연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고, 모두가 만족스러운 방문과 중요한 협의의 체결을 축하하며 기뻐했다. 예술단은 네덜란드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음날 중국으로 귀국했다.

얼마 후 다른 연회에서 안센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늘 그렇듯이 선생은 재치 있는 입담으로 특유의 유머를 섞어 네덜란드인의 이상한 점 몇 가지를 사람들에게 얘기 해주고 있었다. “첫째, 매일 땅거미가 내려앉으면 네덜란드인은 가정마다 모두 커튼을 열어 제치고 실내등을 밝게 켜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실내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네덜란드인은 달력을 화장실에 걸어놓고, 빨간색 펜으로 자신의 생일을 표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화장실은 매일 가니까 여기에 적어 놓으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셋째, 네덜란드에는 많은 정당이 있습니



다. 네덜란드인 두 명이 있으면 3개의 정당이 만들어 집니다. 갑 하나, 을 하나, 갑과 을이 함께 또 하나의 정당을 세우는 겁니다.” 모두들 이 얘기를 듣고 박장대소했다.

얀센선생과 단 둘이 얘기를 하게 되자 검사검사 예전에 다녀갔던 예술대표단과 중국인에 대한 인상을 물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루 선생, 우리는 좋은 친구죠? 그러니 사실대로 얘길 하겠소, 사실 나는 그 단장이 너무 너무 싫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능력 있는 분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파트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이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사소한 일 하나로 매우 불쾌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라는 나의 독촉에 선생은 내키지 않다는 듯 말을 꺼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들어왔을 때, 단장은 내 손을 잡으며 반갑다는 행동을 취했지만, 그의 눈은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대화를 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감정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심을 나타내는 소리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더욱 쉽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조금 놀랐다. ‘단장에게 특별한 유감이 있어서, 이일을 핑계 삼아 자기 속마음을 말한 것은 아닐까’, ‘선입견이 있어서 생트집을 잡는 것이 아닐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언급하지 않았다.

“제가 알기로 단장은 얀센선생을 매우 존중하고 있으며, 협력결과에 무척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분명 고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얀센선생은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한마디 덧붙였다. “저도 고의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네덜란드 사람이었다면 나는 절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화제를 바꿨다.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 후 다른 네덜란드인도 그런 느낌을 받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네덜란드 친구들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했고, 그들도 불쾌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나는 네덜란드 친구들의 대답에 무척 놀랐고, 안센선생의 일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중국 단장은 안센선생을 무시하지 않았다. 또한 상대방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일찍 알았다면 바로 고쳤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이 상대방에게 다시 전해지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며, 예술단단장은 중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스스로 줄곧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번 일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당사자 스스로 잘못을 깨닫기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곧바로 개선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해하기 힘든 중국의 전통문화와 풍습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 Episode 17. 출산과 산후조리

중국인은 '회초리 밑에서 효자가 나온다.'라는 말을 굳게 믿기 때문에 아이들을 엄격하게 교육한다. 하지만 서양인은 이를 '인권침해'라고 말한다. 게다가 임산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산후조리'를 서양인들은 '비위생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어찌면 좋겠는가?

중국인의 자녀교육 방식에 대한 논쟁이 구미국가의 이민사회를 중심으로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사건은 한 아버지가 경찰에게 사살된 사건으로, 질염에 걸린 딸에게 약을 발라주는 모습을 주민과 경찰이 성범죄 현장이라고 오해하면서 발생했다. 이 외에도 생계에 쫓겨 아이들을 혼자 집에 있게 하거

나, ‘회초리 밑에서 효자가 나온다.’라는 말을 굳게 믿는 중국인이 말썽쟁이 아이들을 엄하게 교육시키면서 발생하는 일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참견하기 좋아하는 이웃에게 고발당하거나 거류자격이 박탈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와 비슷한 일로 당사자가 도움을 청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나는 동서양 교육방식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단지 사람들이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중국인 부모는 서양인 부모보다 ‘자식이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욱 간절하게 한다. 또한 ‘교양 없는 아이는 부모의 잘못이고, 엄격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스승의 탓이다.’ 혹은 ‘옥석은 다듬지 않으면 쓸모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을 굳게 믿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욱 엄하게 교육시킨다. 한 중국인 친구의 어렸을 때 일화이다. 그 친구의 집에는 이른바 ‘십계’라는 것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십계’가 아니라 가정에서 꼭 지켜야 하는 열 가지 조항이었다. 부모님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과 놀러 가선 안 된다(유괴당하거나 실종을 막고자), 마음대로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가스레인지나, 뜨거운 물에 데일 수 있기 때문),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등등의 규칙으로, 만약 이를 어기면 상황에 따라 손을 들고 서 있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있거나 심한 경우에는 회초리로 맞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 친구는 자신이 ‘조롱속의 작은 새’처럼 느껴져 얼른 커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보니 부모님의 이런 교육 덕분에 편안하고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으며, 특히 직접 아이를 낳아보니 엄한 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전통의 힘인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현재 중국의 아이들은 대부분 외동자녀로 부모들은 마치 손안에 구슬처럼 아이를 아끼고 보호한다. 부모들은 평생을 근검절약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곳, 특히 교육과 관련된 곳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어떤 부모는 월급이 1000위안이 되지 않는 일반노동자지만, 시간당 80~200위안하는 피아노 레슨을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8000위안 짜리 피아노를 사 줬다. 또 어떤 부모는 각종 학원에 보내기도 한다. 부모들의 이런 행동은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통 서양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중국에는 ‘사랑하기에 때리고 욕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같은 행동을 서양에선 ‘인권침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번에는 여성의 ‘산후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중국에서는 출산 후 약 한달 동안을 매우 특수한 시기로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이 기간에 샤워나 차가운 물 마시는 것, 날것이나 찬 음식을 먹는 것, 바람 쏘이는 것 등을 금한다. 심지어 무더운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지역도 있다. 서양인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임산부는 출산 후에 바로 목욕하고 차가운 물을 마시면, 허리와 다리가 쭈시는 고질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러므로 절대 서양병원에서 요구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중국전통의 부황, 침 등 일부 중의치료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영화 《과사(刮痧)》는 동서양의 이런 문화차이를 그리고 있다. 이 영화에서 서양인은 수 천 년 역사의 중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민을 가거나 해외에서 일하는 외교관,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더욱 더 많아졌다. 다음은 외래문화와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장점을 배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이 중 몇 가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중국과 외국은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 자신의 민족을 부정하는 태도나 자신의 민족을 최고로 생각하는 오만한 태도를 경계해야한다. 중국민족의 문화와 사유방식은 오랜 역사의 가운데에서 형성된 것으로 만약 외국과의 문화적 차이를 발견한다면 그 차이를 인정해야한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모두 다르게 자란다.’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둘째, 외래문화를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다. 중국의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라는 말이 있다. 상대방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누구와 맞서도 지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중국과 외국 문화의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외국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연

구하고 이를 교류학에 포함시킨다.

넷째, 기회가 된다면 외교무대에서 더 많이 관찰하고, 더 깊이 헤아리고, 더 많이 교류하며, 더 많은 것을 학습한다. 특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차이에서도 그 의미를 파악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도 중요하다.

모든 이들이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글로벌 시대의 생활, 특히 외교무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마찰이 줄어들 것이며,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들끼리 면에 방지하여 ‘국제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 Episode 18. 수상부인은 왜 방문을 중단했나?

심각한 표정의 아이들이 유아원입구에 질서 정연하게 서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오색찬란한 조화를 흔들면서, 이구동성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를 외치고 있다. 이것은 수 년 동안 보아온 해외귀빈 환영장면으로 유아원원장님과 선생님들은 이를 위해, 수없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노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장면이 어떤 외국귀빈에게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갔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네덜란드 수상이 중국을 방문 했을 때였다. 중국측은 수상부인을 위해 ‘중국 유아원 방문’일정을 마련했다. 하늘에는 가랑비가 날리고 있었다. 귀빈을 모신 차량이 유치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입구 양쪽에 질서정연하게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똑같이 하얀 티셔츠, 파란바지, 하얀색 운동화를 신은 채 가슴을 펴고 꼳꼳하게 서 있었다. 수상부인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담당선생님이 ‘시작’신호를 보내자, 아이들은 모두 리듬에 맞춰 오색찬란한 조화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아이들의 환영인사를 받으며 수상부인은 유아원의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교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아이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두 손을 허리춤에 놓은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옛된 얼굴들을 보고, 수상 부인은 재빨리 참관을 마쳤다.

귀국 후, 수상부인은 나를 집으로 초대하여 중국 방문 때 찍은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여주었다. 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 나오자, 이날 외국방문을 하면서 처음으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서둘러 참관을 마쳤다고 말했다. 얼른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날 비가 오고 있었는데, 왜 아이들을 문 밖에 세워 둔거죠? 모두 똑같이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목각인형 같았어요. 교실로 들어가니 얼마나 고요한지, 바늘 하나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들릴 정도였죠. 어째서 그런 걸 시키나요? 활발하고, 말썽부리고, 시끄러워야 정상인 대여섯살 아이들인데요. 하지만 마치 군사훈련이라도 받는 것처럼, 천진난만한 모습은 온데간데없는 아이 같지 않은 모습만 제 눈에 보였죠. 이런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녀가 말을 끝내자 동행했던 부인 몇 명이 웅성거렸고, 그 중 한 명이 물었다. “아이들이 평소에도 그런 모습인가요?”

나는 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아이들은 평소 매우 장난을 잘 치는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귀빈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 입구에서 줄을 서서 환영인사를 한 것이며 심지어는 비 맞는 것까지 감수했습니다. 교실 안에서 암전히 있었던 것도 귀빈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유아원 선생님은 이렇게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며칠 전부터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귀빈이 왔을 때 규율을 지켜야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라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부인은 다시 말했다. “루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아이인데, 깡충깡충 뛰어놀고 말썽을 피운다 해도 귀엽지 않겠어요?”

이 일은 나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호의로 했던 일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 또한 사고방식의 차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일부지역에서 이런 환영방식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외국귀빈들은 서로의 입장 때문에 아무 말도 안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접대방식을 기뻐한다고 누가 자신 할 수 있겠는가?

Episode 19. 유럽인은 중국인의 어떤 말을 가장 두려워할까?

‘주인이 하자는 대로 따른다.’는 중국인이 사람을 대할 때, 예의바르고 교양을 갖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손님이라면 응당 주인의 안배에 따라야하며, 주인을 곤란하게 해서도, 주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주인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중국전통의 사유방식에 따르면 이치에 맞는 행동인 것이다. 하지만, 유럽인이 봤을 때 ‘주인이 하자는 대로 따른다.’는 사람을 무척 곤란하게 하는 생각이다.

주네덜란드 중국대사관 재임시절, 네덜란드의 의전담당과 함께 여러 번 중국방문단을 마중 나갔다. 지위가 비교적 높은 대표단이 방문할 경우, 네덜란드측은 종종 대표단의 중요인사를 먼저 공항 안의 귀빈실에서 쉬게 하고, 중국방문단 담당자와 함께 세관에 가서 입국 수속을 밟는다. 네덜란드 측에서는 이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중국 측의 대외활동일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위급 정부대표단일 경우 세부 일정이 사전에 정해지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화를 하기 전 의전담당자는 먼저 사람들에게 콜라, 맥주, 생수, 차등 준비된 음료 중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묻는다. 이 질문에 중국 대표단은 겸손하게 “아무거나 주세요.” 혹은 “뭐든 좋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 말을 들은 의전담당자는 당황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른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방문단 단장이 먼저 ‘차’를 마시겠다고 하고, 다른 이들이 하나 둘씩 동조하면서 결국 모든 이가 ‘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그나마 쉽게 해결되기도 한다. 주문을 받는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지만 마음속으로 ‘중국인은 마실 것을 주문할 때, 모두 똑 같은 것을 골라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일정을 정할 때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만약 조정된 일정에 다른 의견을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아무것도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해진다. 한번은 네덜란드 요원이 한 중국 대표단에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이곳에 왔으니 일단 숙소로 돌아가서 쉬십시오, 시차를 고려하여 공식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점심과 저녁은 숙소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중국요리는 없고 양식밖에 없습니다만, 숙소 근처에 많은 중국식당이 있으니 그곳에서 식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예약을 해 놓겠습니다.” 네덜란드 측의 친절한 접대에 중국대표단 단장은 매우 겸손하게 얘기를 했다. “하자는 대로 따르겠습니다.(영어로 번역하면 up to you)” 중국인에게는 이것은 매우 정중하고, 상황에 적합한 대답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말을 듣고 무척 놀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했다. “중국요리와 양식 중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단장은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통역사에게 얘기했다. “뭐든 다 좋다고 대신 좀 얘기해주시오,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말ियो.” 네덜란드 담당자는 서둘러 말했다. “어떤 걸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뭐든지요.” 중국 측이 오해를 할까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여러분이 네덜란드에서 머무는 기간에 숙식은 모두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장은 깜짝 놀라 대답했다. “네덜란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따르겠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네덜란드 담당자는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후 이 네덜란드 담당자는 이번 대표단 접대가 대부분 수월했으나, 오직 ‘up to you’만은 정말 난감 했다고 살짝 털어놓았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으며 “내가 어떻게 우리 입맛으로 그들의 식성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두 손을 내저었다. 어쩔 도리가 없었던 그의 곤혹스러운 표정은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한번은 중국측 대표단이 순조롭게 현지임무를 마치고 네덜란



드를 떠나기 전날 자유 활동시간이 주어졌다. 네덜란드 측은 오전에는 시내관광을 하면서 쇼핑을 하고, 오후에는 근처 관광을 계획했다. 오후에 갈 수 있는 곳은 ‘네덜란드 튜립공원과 풍차마을’로, 두 곳 모두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관광지이다. 하지만 서로 거리가 비교적 멀고 시간제약이 있었기에 둘 중 한 곳을 고르자 중국 대표단의 의견을 물었다. 중국 대표단의 단장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모두 좋습니다.” 이 말을 들은 네덜란드 담당자는 어리둥절했고, 두 곳 모두 가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두 곳의 특징과 위치를 설명하고, ‘네덜란드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곳만 갈 수 있으니 양해 바란다.’고 말을 했다. 중국대표단 단장은 이제야 오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했다.

“담당자님이 봤을 때 좋은 곳은 다 괜찮으니,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저희 모두 처음 네덜란드에 온 것이니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이 네덜란드 담당자는 매우 난감했지만, 다시 물어봐도 뭔가 정확한 대답은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자신이 결정을 했다. 이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그가 골머리를 앓았을 모습이 눈에 보일 듯 선명하다.

이 담당자가 여러 나라에서 온 대표단을 만나면서 힘들었던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말해주었다. 첫째는 대표단 안에서 의견이 종합되지 않아 조정하기 힘든 경우이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 대처 방법이 난감한 경우이다. 중국에서 온 대표단은 거의 대부분 후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는 ‘up to you’라는 말을 듣기만 하면 머리가 지끈거렸다고 한다.

나는 그에게 중국인의 예절습관에 대해서 설명했다. 설명을 듣고 나서 그는 ‘앞으로 동양인의 습관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며 유럽인들은 ‘개성’을 더 중시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을 방문하는 유럽 대표단의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그들을 접대할 때 개성 때문에 종종 난감한 경우가 발생한다. 어떤 때는 인원수가 10명밖에 되지 않은 대표단의 의견이 5,6개로 나뉘기도 한다. 어떤 이는 비행기 타기를 원하며, 어떤 이는 기차 타기를 원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여, 의전담당자는 즐거운 비명을 지를 만큼 바빠진다. 방을 예약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는 싱글룸을 원하고, 어떤 이는 더블룸을 원하며, 어떤 이는 금연층이 아니면 묵지 않겠다고 한다. 또한 관련부서와의 업무회담을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반

면 회답에 조금도 관심이 없어서 박물관이나 벼룩시장을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다.

동양인, 특히 중국인은 확실히 총체성과 종합성을 더욱 중시한다. 그 연원은 《주역(周易)》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주역》은 또 다시 《역경(易經)》과 《역전(易傳)》으로 나뉜다. 《주역》은 처음으로 서양으로 전해진 중국의 고전중의 하나로 당대 유럽에서도 매우 큰 인기를 끌었으며, 통상적으로 《역경》 혹은 《변화의 경(經)》이라고 번역된다. 최초의 《주역》은 점을 치는 책이었지만, 역대 유학자가 각기 다른 학설이론을 이에 융합시키고, 창조적인 해설을 덧붙이면서 점차적으로 자연, 사회 및 인생에 통일된 해석을 시도한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역경》은 천지의의를 대표하는 건곤(乾坤)이라는 두 개의 괘(卦)를 시작으로, 만사와 만물을 상징하는 64개의 괘로 이루어 졌다. 《역경》은 괘상(卦象)과 64괘를 나열하여, 전체체계를 구현했다. 64괘는 하나의 전체이며, 모든 괘(卦) 또한 하나의 전체로 이루어져 있다. 한 괘를 구성하는 6효(爻)는 상호 제약을 받는 관계로, 임의적으로 그 중 한 개의 효를 변화시키면, 이와 상관된 일련의 변화가 생긴다. 모든 내부관계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부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주역》의 내용에 따르면, 그것은 천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천지간의 도리를 안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주와 우주의 만사·만물 및 그 조직구조뿐만 아니라, 그 운동변화까지 파악한다. 중국 고대사유 방식의 또 다른 전통 관념인 음양(陰陽) 또한 《주역》에서 발전된 것이다. 64괘 중, 음괘(陰卦) 16개, 양괘(陽卦) 16개, 음양괘(陰陽卦) 32개로 이들 사이의 상생상극(相生相剋)<sup>14)</sup>과 상보상성(相補相成)은 하늘과 땅 사이의 만사·만물을 개괄하는 세계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오랫동안 이어져 중국 사회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14)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서의 오행상생(五行相生), 오행상극(五行相剋: 相勝)을 이르는 말.

중의(中醫)를 예로 들어 더 얘기해보자. 중국문화 정수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중의는 8천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진한(秦漢)시기의 의학교서인 《황제내경(黃帝內經)》에 따르면, 의학은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이미 독립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유구한 역사는 양의가 감히 중의에 범접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중의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전체를 중시하는 것으로,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조화가 깨지고 이변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의이론 중 ‘조화’양식에 근거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4가지 균형을 제시하였다. 즉, 동(動)과 정(靜)의 균형, 음(陰)과 양(陽)의 균형, 산(酸)과 알칼리(堿)의 균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성과 감성의 균형인 심리상태의 균형을 말한다.

그 외에 중의의 대표적인 문헌인 《황제내경(黃帝內經)》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는 자연계의 구성성분의 하나로, 사람의 양생(養生)규칙과 자연규칙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늘과 인간은 서로 어울린다(天人相應).’는 의료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생리현상과 자연현상을 서로 연계시켜 질병을 치료해야하며, 자연과 생리현상 및 신경활동을 결합하여 질병의 근원을 고찰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중의 이론에서는 오행(五行)과 인체시스템의 오장(五臟)을 연결시키기도 했다. 오행은 본래 자연시스템의 다섯 가지 기본요소로 중의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상생상극을 이용하여 인체의 생리현상과 인체와 자연계사이의 상호관계를 설명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행자체가 아니라, 오행사이의 관계이다. 어떠한 오장육부(五臟六腑)의 생리활동이라도 몸 전체의 생리활동과 밀접하게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오장육부의 요소는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 또한 몸 전체의 활동도 오장육부의 활동을 제약하며,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과도 서로 제약을 받는다.

중의의 치료방법은 단순히 아픈 곳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상의 성질과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상응하는 치료를 하는 것으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몸 상태를 조절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의의 총체적 치료방법관은 소박한 시스템사상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경락학을 빼 놓을 수 없다. 중의 경락학에 따르면, 경락의 대상부위는 전

신의 경맥을 위주로, 경(經)과 낙(絡)이 서로 교차하여 몸 전체의 신호체계를 구성한다. 일단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병이 생긴 것이다. 경락은 주로 침술과 안마로 진행된다. 침술은 주로 혈을 찾고 혈 자리를 찔러 치료하는 방법으로 근시일 경우 귀에 침을 놓고, 위가 아플 경우에는 다리에 침을 놓는다. 또한 발끝을 안마하면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등 효과가 상당히 좋다.

하지만 중의이론은 고정적인 치료법이 없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치료한다. ‘의자의야(醫者意也)’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중의는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는 뜻으로, 그 모호한 부분이 카오스이론 혹은 퍼지이론과 비슷하다.

양의는 해부학을 기초로 하며, 아픈 곳을 직접 치료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치료하는 식으로, 이가 아픈가? 약을 먹어라,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으면? 뽑는다. 맹장에 문제가 있으면? 제거한다. 폐가 망가졌으면? 잘라낸다 라는 단순한 논리가 적용된다. 중국인은 이러한 방법이 상당히 기계적이라고 생각한다.

한 중국대표단이 유럽을 방문하던 중, 한 단원이 감기와 기침이 폐렴으로 악화되어 급히 현지에서 가장 좋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사는 환자에게 상황을 물은 후, 엑스레이, 초음파검사를 받게 하였으며, 하루에 7번 피를 뽑고, 여러 가지 화학검사를 했다. 수많은 검사로 인해 폐에 물이 찼고, 주사기로 이틀에 걸쳐서도 다 뽑지 못해 결국 폐에 작은 구멍을 내어 의료기계와 연결된 튜브를 집어넣어 물을 빼냈다. 또한, 매일 대량의 항생물질을 투입하고 수액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손에 세 개의 바늘구멍을 뚫어 작은 수도꼭지처럼 그곳을 연결해 각종 항생물질과 포도당을 지속적으로 주입하였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마개로 입구를 차단하고 봉대로 감아놓았는데, 사람이 의료기계로 변한 것 같았다.

2주의 입원기간동안 의사는 아침 회진 때 한번 와서는 몇 마디를 묻고는 가버린다. 하루에 최소한 혈액을 2개관 뽑고, 하루에 한번 두 장씩 엑스레이를 찍었고, 의사는 이 결과에 따라 상태를 판단하고 다음 처방을 내린다. 식사는 전문 영양사가 합리적인 영양식으로 준비하지만, 아쉽게도 아침과 저녁은 날것과 차가

운 음식이었고 심지어는 음료도 차가운 것이 제공됐다. 결국 환자가 이에 불만을 토로했고, 결국 그의 음료는 모조리 전자레인지에 2분 데워서 갖다 주었다. 간호사들은 매일 착실하게 환자를 씻겨주지만, 중국인의 기준으로 볼 때 전혀 따뜻하지 않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했다. 환자가 완쾌되어 퇴원할 때, ‘병원설비도 좋고 의사와 간호사도 친절’했지만, 이런 치료방법에 찬사를 보낼 수 없고, 특히 음식은 끔찍했다고 말한다.

중의에서는 병을 직접 치료하는 것 보다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중시하여, 주로 음식으로 몸보신한 후 약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반면, 서양의 사고방식과 습관은 이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중국환자에게 날것과 차가운 음식을 먹인 것은 중의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신문기사가 있었다. 한 중국인이 유럽 어느 국가에서 병을 치료하던 도중, 고열로 인해 많은 땀을 흘렸고, 병원 측은 선풍기를 가져와 바람을 쐬게 했다. 이를 본 중국인이 얼음으로 열을 내리라고 권했고 의료진은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했다. 중국에서 환자가 열이 나면 의사는 절대 바람을 쐬지 말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 땀을 빼라고 권한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양 의는 지독하게 융통성이 없지만, 때로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규칙적이게 보인다. 특히, 어떤 질병에 관한 특효약은 정말 빠른 효과를 보인다. 항생제의 남용 등으로 인해 약효가 미비한 경우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암처럼 양 의로 치료할 수 없는 병에는 특효약도 없으며, 더 많은 돈을 쓴다고 해도 소용없다. 반면 중 의로 치료 불가능한 병은 없으나, 그렇다고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의사의 경험과, 의료도덕, 환자의 상황이 크게 좌우한다. 그래서 중 의사는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이 많아 병을 치료할 확률도 높다.

중국이 전체를 중시한다면, 서양은 개인화와 개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서양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와 이데올로기가 뒤섞인 역사의 변화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그중 기독교는 개인주의사상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독교의 우주관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자 백성으로 높은 내재가치와 존엄을 지닌다. 중세 이후,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사람의 존엄성이 강조되고 자치권이 확대되면서 개인주의가 신속하게 발전하였다. 서양 근대사에서 개인주의의 발전은 17세기 존 로크(John Locke)의 자유주의에서 나타난다. 신흥자산계급 대변인 로크는 신성권력으로 군주에게 도전하였고 ‘가정과 국가의 분리, 신민의 가정과 개인사유지에 대한 절대권리를 쟁취’를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의 평등, 자치권과 사람사이의 경쟁 및 교환관계를 강조하였으며, 사람은 생명, 자유, 재산 등의 ‘천부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독립선언》중 ‘천부인권’의 기초이론인 자유주의는 현대서양의 개인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개인주의의 또 다른 원천은 17세기 자연철학가가 발전시킨 기계자원관이다. 이 자연관에서는 자연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부분을 재배열하여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사건의 배경에서 사실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일련의 논리와 수학기초에 근거해 재배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페이샤오통선생은 매우 생동감 있는 비유를 들었다.

“서양사회는 우리가 들에서 짚을 모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짚을 모아 단을 만들고, 단을 모아 묶음을 만들고, 묶음을 모아 짐을 만드는 것으로, 모든 짚은 전체의 짐에서 일정한 짐, 묶음, 단에 속해 있으며, 또한 같은 단, 같은 묶음, 같은 짐에 속해 있는 짚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분이 분명하게 되어있어 혼돈되지 않는 것이죠. 사회에서 이러한 구성단위를 집단이라고 합니다. 서양사회의 조직을 ‘짚을 묶는 것 같다’고 한 이유는 그들은 늘 몇 사람이 모여 하나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는 중국 전통사회의 구조를 비교했다.

“중국 전통사회의 구조는 한 다발 한 다발 정확하게 연결된 짚이 아니라, 돌 한 개를 수면위에 떨어뜨렸을 때 생기는 동그라미 파문 같은 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영향으로 만들어진 동그라미의 중심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동그라미는 다른 동그라미와 접촉하면 서로 연결됩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는 동그라미는 반드시 모두 같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친족관계는 바로 이러한 돌을 떨어트려 형성된 동그

라미파문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페이사오통선생은 서양사회는 집단구조라고 말했다. 즉, 개인은 평등 원칙에 근거해 집단을 조직하고, 일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에서 운용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전통사회의 구조는 차등관계 구조로 가족을 중심으로, 인륜을 기초로 한 차등관계의 네트워크라고 말했다. 이런 혈연, 친족애, 윤리도덕과 실제 이익으로 구성된 사회 네트워크에서 인간은 추상적인 의미가 있는 ‘동등하게 여겨지는 개개인의 존재’가 아닌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자의 지위에 맞추어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구체적인 가정의 일원인 것이다.

이런 네트워크 구조는 전체성이 매우 강해, 그 중 한 부분에만 영향이 미쳐도 그것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중국 전통사회는 차별과 등급에 따른 인륜관계로 유지되고 운용된다. 이런 차별은 성별, 연령, 향렬 등 불평등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인간의 가치는 그의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특히 중국 봉건사회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먼저 군위신강(君爲臣綱)<sup>15)</sup>이라 하여, 황권은 지고지상하다. 그 다음으로, 황권 아래도 등급관념과 등급제도 없는 곳이 없다. 사회에서 인간은 여러 등급으로 나뉘지며, 가정에서는 부위부강(夫爲婦綱), 부위자강(父爲子綱)의 관념이 존재한다. 이런 상존하비(上尊下卑)를 강화하는 수단 중 하나는 강건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쓰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하게 된다. 작게는 자식의 혼인도 부모가 결정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결혼할 상대가 누구든 여자는 출가 후에 좋은 실든 평생 남편을 따라야 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결혼 상대자가 죽으면 그를 따라 죽음으로서 ‘그냥 집에 정절문이나 세워 조상과 가문을 빛낸다.’

크게는 치국정책에서 볼 수 있다. 황제가 현명하든 우매하든 황제의 말 한마디는 거대한 영향력을 가져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 그러니 일반 민중들은 위정자의 공적과 은덕을 찬양하는 것 말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15) 신하(臣下)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根本)임

서 중국인은 자아의식이 부족하게 되었고, 모든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쏠리게 되었다. 한 외국인이 이에 날카로운 비판을 한 적이 있었다. “중국인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이 많지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에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편파적인 말이지만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다.

Episode 20.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중국인은 ‘대국적인 견지’하에 꼼꼼히 계획하고 원대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미래계획이 없으면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 ‘항상 위험에 대비하라.’라는 말을 자주하며, 사회전체의 이익과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을 굳게 믿는다. 하지만 서양인은 무언가를 고려할 때, 먼저 개인의 이익과 눈앞의 이익을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사회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한다. 이것은 무엇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이다.

중국인이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사유방식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편지를 쓸 때도 항상 먼저 국가 명을 쓰고, 성, 시, 구, 동 그 다음 번지를 쓰고 맨 마지막에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쓴다. 게다가 이름을 쓸 때도 성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을 써서, 전체를 중요시 하는 것을 나타낸다. 서양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쓴다. 또한, 번지, 동, 구, 시, 주, 국가 명을 쓴다. 또 다른 예로, 이력서를 쓸 때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간의 선후에 따라 나열한다. ‘누구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출생했다’라고 쓰는데, 이전에는 본적까지도 정확하게 썼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닌 기간과 졸업 후 다닌 회사에서 담당했던 일들을 한 항목씩 분명하게 기록한다. 구직을 위한 이력서나 신청서라면 가장 마지막에 간단한 코멘트를 적어 일



을 하는데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서양의 이력서는 과거를 적더라도 대학 이후부터만 적고, 자신의 특기와 취미, 그리고 향후 포부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자신들의 분명한 개성을 종이 위에 생생하게 나타낸다.

중국인은 ‘대국적인 견지’하에 꼼꼼히 계획하고 원대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미래계획이 없으면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 ‘항상 위험에 대비하라.’라는 말을 자주하며, 사회전체의 이익과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을 굳게 믿는다. 하지만 서양인은 무언가를 고려할 때, 먼저 개인의 이익과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 이후에 사회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한다. 이것은 무엇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이다.

양씨 성을 가진 한 화교분이 독일에서 중국식당을 열었다. 매우 엄격하고 성실하게 노력하여 식당은 번영하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지속하였고 한 푼이라도 더 아껴 쓰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그가 번 돈의 일부분은 또 다른 곳에 재투자 하였고, 일부는 아이들의 교육에 사용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는 분산하여 저축하여 만약을 대비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종업원 생활을 시작한 독일인은 현재 양선생 아들의 식당에서 파트타임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근검절약한 생활을 한 사람은 현재 능력 있는 사장님이 되었지만, 또 다른 이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은 절약하는 생활습관 이외에도, 추구하는 인생관이 달랐기 때문이다. 한 명은 집안을 일으키고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후대를 위해 열심히 재산을 모았다. 또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 오늘 번 돈은 오늘 쓰는 생활을 이어갔다. 이 두 가지 인생관도 두 가지 문화가 반영된 것이다.

물론 이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정형화할 수는 없다. 모든 독일인이 그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남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독일인은 근검절약하는 편이다. 독일에는 ‘가난한 것은 두렵지 않으나, 늙는 것은 두렵다.’라는 속담이 있다. 서양의 강한 자아의식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낳은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보편적으로 낮은 출산율로 인해, 서양의 많은 국가들은 잇달아 각종 우대 정책을 실시하여 자국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이 중에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대학교에 진학할 때까지의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해 주는 정책도 있다. 그래서 서양 부모들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까지 아이들을 키울 필요가 없다. 18세 무렵이면 서양 청소년은 대부분 독립한다. 설령 부모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빌린 돈으로 여겨 나중에 반드시 갚는다. 성장한 후 부모를 대하는 모습은 각자 관계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고 반드시 효도를 해야 한다는 개념은 없다. 그리하여 많은 노인들의 생활은 매우 외롭다. 독일 노인들에게서 중국의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사상’이 부럽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 가족이 누리는 단란함, 이것 또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